

2016년 교원 해외 파견단 모집



"한 명의 학생, 한 명의 선생님, 한 권의 책
그리고 한 자루의 펜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육이 최우선입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말라라, 2013. 7. 12. UN 연설에서 -

파견 기간
파견일로부터 1년(매년 연장 가능, 최대 3년)

파견 인원
140명

파견 국가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모집 대상자
현직교원, 예비교원, 퇴직교직원(자문관)
* 현직교원의 경우, 고용휴직 형태

활동내용
파견대상국 정규 학교에서 주 20시간
내외 수업 또는 수업자문

지원사항
급여, 체재비, 왕복항공권, 사전연수,
기타 제반 비용(보험,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주요일정
서류접수(3월 23일~4월 22일)▶
면접 및 수업 시연(5월 21일)▶
최종선발(5월 말)▶
사전연수(6~8월)▶
파견 및 활동(8월 말)
※상기 일정은 진행 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문의처
해외 교사 진출 (해.교.진) 카페
(<http://cafe.naver.com/niiedteacher>)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교육개발협력팀
(02-3668-1424, 02-3668-1372,
02-3668-1370)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행복한 교육

즐기고 소통하는 창의적 과학교육
수행평가의 교육적 의미와 동향
자유학기제 학부모 토크콘서트
달라진 학교 안전교육



Contents



07

현장 이야기

- 02 꿈이 영그는 현장
답양 창평중학교
- 08 삶과 교육
홍성희 서산고등학교 교사
- 12 이런 수업 어때요_초등
최고봉 교사의 협력적 토론 교실
- 16 이런 수업 어때요_중등
문영임 교사의 '긍정적 수학문화운동'
- 20 에너지충전소
탐라지리교육연구회 / 파이데이아합창단
- 22 화제의 교사
최달진 인천 만성중학교 교사



09

정책 이야기

- 기획** 즐기고 소통하는 창의적 과학교육
- 26 이제는 과학도 소통이 핵심이다
- 28 꿈과 행복을 위한 과학교육 실현 '과학교육종합계획'
- 32 학교는 '과학적 환경'으로 속속 탈바꿈
- 34 시도교육청 플러스
독서교육_ 강원 / 광주 / 대구 / 울산 / 부산 / 대전 / 전남 / 충북
- 40 정책과 소통
자유학기제 '맘에 쏙' 학부모 토크콘서트 현장
- 42 클릭, 교육부
공교육 개혁의 선두주자 학교정책관
- 44 초점 I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꽂 피운다
- 46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제13회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학교 수기_ 세종 아름중학교
- 50 청년들에게 꿈을
고교-전문대 5년 맞춤형 직업교육과정 '유니테크'
- 52 정책카툰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 관리대응 매뉴얼



13

정보 이야기

- 교육논단** 수행평가의 교육적 의미와 동향
- 54 교육평가의 종류와 특징
- 56 수행평가의 개념과 효과
- 58 올바른 수행평가 시행을 위한 제언
- 60 초점 II
퇴계원고, 맞춤형 학습 플래너로 일반고 역량 업그레이드
- 62 초점 III
여성의 공학 분야 진출이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 64 학교 밖 학교
시청자미디어센터
- 66 학급경영노트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학급상담
- 68 명예기자 리포트
선생님들의 성장학교, '구름학교'가 열리다! 外
- 72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역사교육 변화의 시작입니다
- 74 자녀교육 Q&A
영재를 둔 부모들의 특징



61

교양 이야기

- 76 생각나눔
학교폭력을 막는 기막힌 방법
- 78 뉴스브리핑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평가결과 발표 外

- 80 행복게시판
구독신청 & 五자만답



**Vol. 405
April 2016**

COVER STORY

과학중점학교인 경기 부흥고(교장 최승복)
학생들이 3D프린터로 만든 드론을 선보이며
무한상상실에서 활하게 웃고 있다. 3D프린터
레이저카터기 등이 갖춰진 이곳에서 학생들은
과학적 상상을 현실로 만든다.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로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3년차인 창평중은 농촌이라는 지역적인 한계를 기회로 삼고 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더욱 견고하게 다듬고 방과후 드림스쿨과 토요동아리를 운영하며, 학교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오케스트라는 이제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의 자부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담양 창평중학교

방과후·토요일에도 언제나 ‘배움 중’

광주시내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담양 창평면은 슬로시티로도 우리에게 친숙하다. 창평 슬로시티는 동편의 월봉산과 남쪽의 국수봉이 마치 봉황이 날개를 펼쳐 감싸 안은 형국으로 월봉천과 운암천, 유천이 마을 아래에서 모인다하여 ‘삼지내’라고 한다. 전통가옥과 아름다운 옛 돌담장을 따라 걷다보면 1000년의 시간과도 만나는 곳이다. 근대 최초의 교육기관인 영학숙과 창홍의숙의 고장이며,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창평의 중심에 창평중학교(교장 강석범)가 있다. 3년 전 농어촌 우수 중학교로 지정된 창평중은 농어촌학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의 중심에 서서 힘차게 도약한다.

‘공교육의 힘’으로 농어촌의 어려움 극복
창평중에 올해 18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대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지만 다른 농어촌지역에 비하면 그래도 상황이 좋은 편이다. 올해 전국 100여 곳의 학교는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했다. 저출산과 농촌공동화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특히 농촌·도서지역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창평중은 이런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드림스쿨 및 진로교육, 오케스트라 활동 등으로 학생이 오고 싶은 학교, 학부모는 보내고 싶은 학교, 교사는 머물고 싶은 학교, 지역사회는 함께 하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있다.

“우리 학교의 드림스쿨은 교육과정

에서 채 다루지 못한 것을 방과후 강좌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어요. 수업과정에서 다루지 못한 응용을 다루거나 토의·토론식 수업을 하거나, 수학 모형 만들기 등을 하는 식이죠. 토요일에는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반을 편성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법을 익히면 고교에 진학해서 자기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석범 교장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주요과목 중심의 학습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해 제과제빵, POP, 공예, 도자기, 밴드, 퀼트 등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이 이뤄진다. 또 창평중 학생의 70%는 토요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등교한다. 시간에 쫓겨 활동이 뜳했던 스포츠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위한 시간이다. 지구의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지구 사랑동아리’나 공공미술 작품 활동을 하는 ‘모DO동아리’, 바느질법을 익혀 실생활에 필요한 작품을 만드는 ‘퀼트 동아리’, 기타연주동아리, 진로동아리, 영어동아리, 수학(솨솨솨, 피타고라스)동아리 등 모두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란?

교육부는 농어촌 중학교 집중육성방안에 따라 2013년부터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를 지원 육성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자리한 지리적,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면서 도시 지역에 버금가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전국에 80개교가 운영 중이다. 거점별 우수 중학교에는 3년간 3억원 내외를 지원하며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오케스트라,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거점별 우수 중학교는 도시지역 학생이 쉽게 전·입학이 가능하며, 학교장 공모제(초빙형)를 실시하고 진로진학 상담교사 및 우수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도 함께 받게 된다.





01 첨단 기자재를 갖춘 스마트교실

02 '적성에 맞는 서울대 학과 선택하기'를 주제로 진로 프로젝트 중인 학생들이 서울대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를 방문해 인터뷰한 내용을 밴드에 상세하게 올려놓았다.

03 KBS 방송국에서의 진로체험

04 05 계란을 부화시켜 병아리, 닭으로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지구사랑동아리 학생들



02



03



05

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정세아(2학년) 학생은 “매주 토요일, 학교에 나와서 수학, 영어공부를 해요. 혼자 공부하기도 하고 수업시간에 질문하지 못했던 것들은 따로 모아서 선생님께 질문도 해요. 원어민 선생님과 대나무축제도 함께 다녀오고 영화관도 갔었어요. 교과서 속에는 없는 생활 속의 영어표현을 배울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라고 말한다.

학년별 영역별 진로로드맵을 만든다

창평중은 꿈과 비전을 찾아가는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학년별, 영역별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진로로드맵을 완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이 주제로,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지난해에는 한국잡월드와 서울 일대로 3학년 전원이 진로직업체험을 다녀왔다. 적성에 따라 조를 나누고, 직업체험에 머물지 않고 한 단계 확장할 수 있도록 ‘적성에 맞는 서울대 학과 선택하기’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조별로 활동하면서 중간과정을 밴드에 올려 경과를 보고하는 식이다.

서울대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를 방문한 나선진 학생 조는 ‘3학년생을 만나 연구소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

었다. 형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매우 소중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소개했다. 신현지 학생 조는 ‘세 번씩이나 인터뷰를 실패한 우리 조는 의욕이 사라졌지만 음대 작곡과에 다닌다는 2학년 선배를 만나 결국 인터뷰에 성공하였다. 음대 진학은 성실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올해, 오케스트라 결성 4년째를 맞은 창평중은 지역사회에 오케스트라를 연

주하는 학교로도 유명하다.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로 선정되면서 열악했던 연습실도 새롭게 단장했다. 지금은 악기장을 비롯해 6곳의 연습실과 협연이 가능한 다목적실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주2회 3시간씩 파트별 연습과 합주를 해오고 있다. 광주 시향의 단원들이 파트별 교육을 맡고 있다. 김용균 음악교사는 “마을 축제에 재능기부로 무대에 오르면서 ‘창의 평이 오케스트라’는 학교의 자랑을 넘어

INTERVIEW

“토요일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학교”

강석범 교장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노하우가 있습니까?

창평중은 동문들이 주는 장학금이 여려 개 있습니다. 학교는 작지만 지역주민의 관심이 많고 자부심도 높은 편입니다. 지역사회와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자녀에 관심을 기울여주면 전문가 강연을 준비하거나 기회가 될 때 평생 모교로 기억될 아이들에게 학교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을 요청하기도 하고, 학교도 지역축제에 오케스트라단의 재능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효과를 꼽는다면.

오케스트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소리보다는 하모니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자기 중심적인 성향의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2~3년 전부터는 학교폭력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이 이뤄지면서 감수성이 자라고, 연주하는 과정에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었다. 담양 포럼에서는 ‘아리랑’, ‘벗으로 사는 세상’으로 울림을 전했고, 세계대나무박람회에 참여해 거리공연을 통해 창평을 알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현재 현악기(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목관악기(플룻, 클라리넷), 금관악기(호른, 트럼펫, 트롬본, 튜바), 타악기(드럼, 키보드)로 구성된

‘창이 평이 오케스트라’에 48명이 활동 중이다. 오케스트라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학교폭력이 사라졌으며 문화예술교육으로 학교 분위기도 밝아졌다. 첼로를 담당하는 서민주 학생은 “곡을 이해하고 기능적인 부분을 마음껏 익힐 수 있어 좋다. 오케스트라는 누구나 쉽게 경험



06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협소했던 악기연습실을 새롭게 단장했다.

07 강석범 교장은 농촌의 작은 학교지만 학생들이 보다 세상을 넓게 보고 큰 바람을 갖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08 창평중은 꿈과 비전을 찾아가는 다양한 진로 체험활동을 통해 학년별, 영역별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진로로드맵을 완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09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오케스트라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만든다. ‘창이 평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합주하고 있다.

10 창평의 특산물 쌀엿만들기

11 훈불문화관 체험

“공부법 서울대생에게 배웠어요”

지난 2월에는 서울대생과 함께 하는 ‘멘토-멘티 나눔교실’이 열렸다. 서울대생 7명과 창평중 28명이 참여한 나눔교실은 학생, 학부모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나눔교실에 대한 모티브는 프

로골프선수 박세리였어요. 박 선수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미국여자프로골프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에 많은 한국 선수들이 미국여자프로골프에 진출했고, 또 많은 우승을 거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다 세상을 넓게 보고 큰 바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석범 교장은 창평중 학생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만한 사례가 없을까 고민했고, 서울대 학생들을 떠올렸다. 특별히 연고가 있거나 인맥이 닿았던 것은 아니다. 무작정 학생동아리실을 찾아가 취지를 설명했다.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나눔교실이 열린 사흘동안 서울대 학생들의 공부노하우, 자투리시간 활용법 등을 배우고 진로고민에 대한 상담도 이어졌다. 모두에게 값진 시간이었다. 최예빈(3학년) 학생은 “1대1 진로상담이 가장 인상적이다. 어떻게 서울대에 갔는지 노하우와 공부법, 시간관리 방법을 알려줬는데, 쉬는 시간에 복습하거나 버스타고 다니면서 단어를 공부하는 식의 자투리 시간 활용법은 지금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박혜선 학생은 “내가 연주하는 세컨드바이올린은 소리가 커서 다른 악기의 울림을 잘 들으면서 연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케스트라는 학교생활과도 비슷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동안 창평중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학생 수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으면

서도 농촌지역 거점학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왔다. 열악한 교육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더욱 견고하게 다듬고 방과후 드림스쿨과 토요동아리를 운영하며, 학교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오케스트라는 이제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의 자부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②

홍성희 서산고등학교 교사

“**베품**은 나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

딱 3년만 사회생활을 경험한 후 수녀가 되리라 마음먹고 시작한 교직이었다. 음악교사가 되어 '82년 대산중학교에 첫 발을 디딘 홍성희 교사는 '물불 가리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 매달렸다. 그는 수업시간에 할 수 있는 건 다했다는 말로 당시를 회상한다. 합창, 장구, 리코더, 하모니카….

시험점수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체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시험성적도 1등, 체육대회도 1등, 음악경연도 1등… 담임학급 아이들이 두각을 드러내면 그것이 보람이라 생각했다. 수녀원에 가려던 계획이 어긋나고 80년대 후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태동에 관여하면서 그는 아이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무엇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아이들은 그 자체로 반짝이는 존재였던 것이다.

“교직 첫해에 음악이론시험 평균 70점 이하로 맞은 학생들을 때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 마음 역시 사랑이었고 열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느끼고 깨닫고 있지만, 가장 두려운 건 '가르치지 않는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찌하든지 외면하고 입을 닫는 선생님이라면, 더 이상 선생님일 수 없으니까요.”

해직과 시민운동

전교조 해직교사가 되어 학교 밖에서 시민운동을 벌일 때도 그의 마음은 늘 아이들에게 향했다. 서산YMCA, 서태안환경연합 등에서 환경운동을 펴며 아이들에게 건강한 자연과 미래를 주고 싶었다.



우연이라고 했다.

수녀가 되려 했으나 교사가 된 것, 해직되어 시민운동을 한 것, 어려운 제자의 후원자가 된 것, 김장 1000포기를 담가 소외된 이들과 나누는 것, 나보다 아이들을 더 생각하는 것….

우연은 이어지고 끊어지고 어우러져 지문처럼 존재를 증명한다. 홍성희라는 이름 안에 담긴 수많은 우연은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져 그만의 무늬를 그려가고 있다.

01 홍성희 교사는 음악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악기라도 하나 더 가르치려 노력하는 편이다. 요청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미다하지 않는 그이기에 가톨릭신사이면서도 수년간 부식사 자선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02 03 홍성희 교사와 '홍성희보다 착한 사람들'이 함께 해마다 1000포기 김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있다.

04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급식을 챙기는 홍성희 교사. 방학 보충수업 기간에는 인원이 적어 급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홍 교사가 20인분의 밥을 직접 짜어 준비한다.



01

그의 아버지인 고 홍정돌 교장(충북 영동용문중학교에서 정년퇴임)은 온 동네의 주례를 도맡아 서며 지역민의 존경을 받는 교육자였다. 당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교육운동·시민운동으로 바쁜 홍성희 교사에 대해 주위의 염려가 적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결코 이를 내색하지 않았다. 다만, '건강해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며 건강을 당부했다.

김장 1000포기의 기적

'94년 다시 교단으로 돌아왔다. 농민운동을 하는 옛 제자가 찾아와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가 계신데 선생님께서 김장 좀 도와주시라' 청했다. 홍성희 교사는 김장 30포기를 담기 시작했다.

"졸업한 제자들을 불러서 13평짜리 제 아파트에서 김장을 시작했어요. 30포기, 50포기, 그렇게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보내드렸지요. 애초에 '이 일을 꼭 하겠다'는 계획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마다하지 않고 자연스레 흘러가다 보니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근무지를 부서고로 옮기면서 홍성희 교사의 김장봉사는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됐다. 입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기부도 이어졌다. 무밭이나 배추밭



02

을 내주며 뽑아다 쓰라는 농부, 봉사자들의 이동을 돋는 차량을 운전해주는 동료 교사, 채소 쓰레기를 우리 밭에 버리라고 허락해 준 학부모, 봉사자들의 점심밥을 만들어주는 이웃, 자신의 앞마당에서 일하고 공간을 내준 서산 왕돼지식당 주인 등… 홍성희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의 교직원들을 비롯해 제자, 학부모들이 김장에 소요되는 비용도 십시일반



04

모아 내놓았다.

제자 서너 명과 같이 30포기로 시작한 김장은 20여 년을 이어오면서 70명 봉사자가 함께 하는 1000포기 김장으로 커졌다. 홍성희 교사와 '홍성희보다 착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다.

홍성희 교사의 김장봉사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참여하도록 학생들에게 '봉사점수'를 주지 않는다. 다만 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내용을 기록해 준다. 또한 봉사하면서 먹는 점심식사 비용 3,000원은 스스로 부담한다.

연 손을 불어가며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 만든 1000포기 김장은 해마다 서산시 수석동사무소를 통해 독거 노인, 장애인, 지역공부방에 전달된다.

꿈을 향해 나아가라

홍성희 교사가 가장 정성을 쏟는 일

은 진로진학지도이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존감도 낮고 꿈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삶의 목표를 불어넣기 위해 서다.

그는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을 3학년 까지 이어서 담임과 학년부장을 겸임하며 지도한다. 1학년 학기 초부터 개인별 상담을 통해 라포를 형성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찾아 관련 동아리활동을 권장한다.

또 학생마다 3년간 진로파일을 만들어 대입 자료로 활용한다. 특히 학업의지를 보이는 아이들은 '특별반'을 구성해 운영하는데, 야간자율학습에 국어·수학·영어수업 외에 홍 교사가 직접 지도하는 면접수업을 개설해 심층면접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돋고 있다. 또한 방학 보충수업기간에는 급식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홍성희 교사가 나서서 학생과 교사 20인분의 점심식사를 손수 준비한다. 그

는 간단치 않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해낸다.

홍성희 교사가 이루어낸 대입 실적은 괄목할 만하다. 근무지마다 학생들을 을 유수 대학에 속속 입학시켰다. 그는 농어촌지역 학습능력 향상을 인정 받아 2009 교육부와 EBS가 주최한 '공교육 살리기' 학생지도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14 올해의 스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가고 싶은 대학을 가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어요."

홍성희 교사는 점점 거세지는 아이들 앞에서 생활지도에 무기력한 후배 교사들을 보는 일이 안타깝다고 전한다. 가르치지 않으면 교사가 아니라는 것, 생활지도를 포기하면 교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점점 잔소리 안 하는 교사가 늘고 있어요. 지치지 말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자는 교육자 이기에 돋고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베풀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손 내밀 때 거절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홍성희 교사는 학교에서 '잔소리 대마왕'으로 통한다. 하지만 아이들도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대마왕의 잔소리에 담긴 의미를. 그저 너무 늦지 않길 바랄 뿐이다. ②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선 디베이트 수업을 생각했다면,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자. 최고봉 오안초 교사의 협력적 토론 교실은 넓은 의미의 토론(토의, 토론, 합의) 개념으로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해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협력적인 학습은 적극적인 배움으로 이어지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최고봉 교사의 협력적 토론 교실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적극적인 배움의 장



여행에는 설렘이 있다. 친구들과 일정에 맞춰 여행지를 정하고 무엇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설렘으로 가득 차 여행을 두 배로 즐겁게 해 준다. 홍천의 오안초(교장 이해규) 4~6학년 아이들의 이야기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여행지를 선정하고, 1박2일간의 일정을 촘촘하게 짜는 것은 아이들의 몫이다. 모둠별로 여행계

획을 세우고 여기서 선택된 '최고의 계획'은 오는 5월 수학여행 코스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수학여행 계획 세워볼까

오안초는 전교생 73의 작은 학교로 매년 4~6학년 아이들이 함께 수학여행을 간다. 지난해에는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장소를 정했는데, 올해는 장소

를 정하는 일부부터 여행일정을 짜는 활동까지 수업시간에 협력적 토론과 프로젝트 활동을 통합하여 '수학여행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후보지는 정선과 영월. 3월 11일 모둠별 여행계획을 세우기 위해 4~6학년 학생들이 도서실에 모였다.

"32명,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예산은 3,532,000원입니다. 수학여행 계획에는 여행 코스는 물론이고 식비, 간식비, 체험료, 입장료를 포함해서 사용경비도 계획해야 합니다. 밤에는 영월 별로마천문대에서 별자리를 관측하고 잠을 잘 거예요. 버스비(100만 원)와 숙박비(96만 원)을 제외하고 예산을 짜보세요."

최고봉(6학년 담임) 교사로부터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정선, 영월 지도를 건네받은 아이들이 들떠있다. 연우(6학년), 진영(6학년), 수연(4학년), 호경(4학년) 모둠은 미리 조사해온 정선·영월 일대 여행정보를 펼쳐놓았다.

"숙소가 영월에 있으니까, 첫째 날은 정선을 둘러보고 저녁 먹고 별로마천문대로 가면 좋을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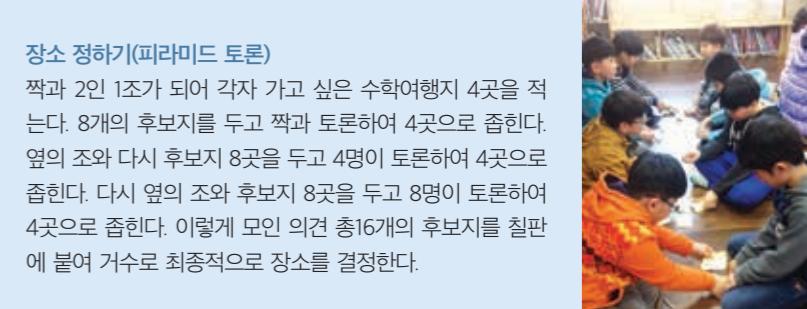
"난 여행코스에 레일바이크를 꼭 넣었으면 좋겠어."



01

01 교실에서는 상대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는 협력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오안초 최고봉 교사.

02 '수학여행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오안초 4~6학년 학생들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협력적 토론을 통해 여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장소 정하기(피라미드 토론)

짝과 2인 1조가 되어 각자 가고 싶은 수학여행지 4곳을 적는다. 8개의 후보지를 두고 짝과 토론하여 4곳으로 좁힌다. 옆의 조와 다시 후보지 8곳을 두고 4명이 토론하여 4곳으로 좁힌다. 다시 옆의 조와 후보지 8곳을 두고 8명이 토론하여 4곳으로 좁힌다. 이렇게 모인 의견 총 16개의 후보지를 칠판에 붙여 거수로 최종적으로 장소를 결정한다.



02



이런 수업 어때요, 초등



03

04

“수학여행인데, 야식으로 치킨먹자. 그려려면 한 끼 정도는 밥값을 절약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첫날 점심은 집에서 각자 도시락을 싸오는 게 어때?”

“그러는 게 좋겠다. 32명이 먹으려면 치킨은 몇 마리나 시켜야 할까?”

계획만으로도 신이 난 아이들.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이용해 이곳저곳 검색하며 가고 싶은 곳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여행 코스의 윤곽이 나타났다. 학교에서 9시에 출발하여 오장폭포-레일바이크-스카이워크-별마로천문대-김삿갓 문학관-세계민속악기박물관-학교로 돌아오는 코스다.

“속도가 너무 느린데, 우리 역할을 나누 진행하는 게 어때?”라는 누군가의 제안에 자연스레 역할분담이 이뤄졌다.

진영이는 체험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장료와 체험비를 조사하고, 수연이는 체험지에서 가까운 곳의 맛집 정보와 가격 검색에 나섰다. 연우는 제일 복잡하고 까다로운 동선에 따른 이동시간, 체험시간 등을 체크하며 여행 코스와 예산을, 호경이는 보고서를 작

성하고 꾸미는 역할을 맡았다. 각자 미션에 정해지자 더욱 분주해졌다.

아이들이 모둠별로 여행계획을 짜고 보고서를 만드는 동안 최고봉, 광대범, 이지현 교사는 돌아다니며 아이들이 놓치는 부분을 조언한다. 이동시간을 누락한 경우는 없는지, 일정이 너무 느슨하거나 빠듯하지는 않은지 등등. 이렇게 8개의 각기 다른 여행계획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김연우 학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떠나는 수학여행이기에 사전조사도 많이 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짜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둠이 계획한 대로 수학여행을 떠나게 되어 벌써 설레기도 하고 기분이 무척 좋아요.”라고 말한다.

“이런 수업도 토론수업인가요?”

오안초의 협력적 교실 토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컫는 토론과는 조금 달라 보인다. 협력적 토론은 협력학습을 바탕으로 하여 토의, 토론, 회의를 포함한 넓은 개념의 토론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협력적 교실 토론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이런 것도 토론인가요?’라는 물음이었어요. 토론이라는 용어는 찬반대립 토론, 토의, 회의 등의 세부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토론은 경쟁적이고 대립하고 분위기가 험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편견을 깨고 다른 방식의 토론도 가능함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물론 찬반대립 토론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교실에

05



서는 협력적인, 상대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는 토론교육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교직생활 12년차에 접어든 최고봉 교사는 2004년부터 토론교육에 상담 요소를 결합한 교육에 힘써왔다. 2009년부터 협력적 토론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실수업에 적용해 왔으며 3년 전부터는 토론교육에 뜻을 함께 하는 강원지역의 교원 40여 명이 동참하고 있다.

“토론의 중요한 가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합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최대한 민주적

이고 합리적으로 합의해 나가는 정신이 토론 교실에는 녹아있어요. ‘수학여행 프로젝트’는 높은 수준의 문제해결력을 요구하고, 최고 난이도를 갖춘 토론활동입니다.”

최 교사의 협력적 교실 토론에는 세 가지 철학이 있다. 모두가 학습에 참여하고 협력적인 학습이 적극적인 배움으로 이어져야 하며 특정한 교과와 언어 기능을 넘어 총체적인 학습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한두 번의 경험만으로도 원리를 쉽게 파악하는 반면, 교사들은 토론방법이나 과정, 발문 등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한다.

“토론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하고, 토론기법을 난이도에 맞게 자유자제로 써야하기 때문에 초보 선생님들은 많이 어려워하죠. 하지만 ‘왜 토론을 하는가?’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협력적 토론을 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머리를 맞대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적인 규칙을 만들고 배움과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무엇이든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때 교육효과는 극대화된다. 최고봉 교사는 수학여행 계획을 시작으로, 올해 모든 체험활동 계획을 아이들에게 맡겨볼 생각이다. ②

최고봉 교사가 제안하는 협력적 토론 기법

토론명	토론 방법
한 줄 글쓰기	토론자는 각자 한 문장만 쓰지만 여럿이 참여하므로 문장이 여러 개가 된다. 토론자들은 이 문장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논의를 거쳐 ‘자기완결성을 갖춘 글’을 만들게 된다.
빈칸 채우기	채우기는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등에 여러 번 등장한다. 빈칸 채우기 활동은 두 명이 짹을 지어 함께 빈칸을 채우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 두 명이 짹을 지어 토론을 한 후 결론을 하는 것은 짹토론이라고 부른다.
공통점 찾기	모둠별로 진행하는 대표적인 협력적 토론 방법. 공통점 찾기는 4~6명 정도의 모둠이 적당하다. ‘눈에 보이는 공통점 찾기 → 간단한 공통점 찾기 → 깊은 공통점 찾기’ 순서로 이어진다. 보통은 10분 정도 공통점을 찾는다. 4명 이내의 모둠이라면 15개 정도, 5~6명은 12개, 7~8명의 모둠이라면 10개 정도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신호등 토론	신호등 색깔을 이용한 것으로 찬성, 반대 그리고 중립(보류)이 있다. 이 중립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판단을 유보(보류)한다는 의미이다. 주제 예시-‘글쓰기 실력 향상을 위해 일기검사를 해도 좋다’, ‘학교에 탄산음료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
가치 수직선 토론	가치판단을 눈에 드러나는 수치로 나타내는 활동을 할 때, 쟁점이 되는 토론을 할 때 사전활동으로 가치수직선 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만 있는 것 이 아니다. 반대 중에도 강한 반대가 있고, 약간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찬성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수직선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찬성, 반대를 하는지 표현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
모서리 토론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유명한 토론방법이다. 보통의 교실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다. 교실 상황을 고려하여 모서리마다 다른 생각을 나타내면 네 가지 정도가 나온다. 그러나 모양에 관계없이 코너를 만든다면 더 많은 것수가 나올 수 있다. 토론 참여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에 가까운 모서리로 이동해서 토론을 한다. 그리고 그 토론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 토론 참여자라면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마지막 순서인 토론결과 발표시간에는 ‘어, 이런 생각도 있어?’라는 다른 입장을 접하게 된다.

문영임 포항항도중 교사의 수학 수업은 일단 재밌다. 학기 초에는 수학의 의미 찾기로 시작, 모둠게임과 협력학습으로 수업 내내 아이들은 웃는다. 다양한 활동과 수학 행사로 수학적 호기심을 키워가는 문 교사의 수업을 들여다보자.

문영임 교사의 '긍정적 수학문화운동'

“수학 왜 배워야 할까?” 의미 찾기로 수업 시작



“최고의 직업은 바로 수학자라고 합니다. 수학지식이 필요한 직업군이 상위 5위 안에 들어 있는데요. 미래 직업 순위를 조사한 결과 수학자는 작년에 비해 15단계나 오르면서 1위를 차지했고, 수학 관련 분야도 앞으로 2022년까지 23%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포항항도중(교장 김두명) 1학년 1반 수학시간. 문영임 교사의 새 학기 수업은 수학의 의미 찾기에 서 시작된다. EBSMath 자료를 활용한 UCC 동영상은 수학 직업군에 대한 미

을 똑똑 두드리면,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하지요.”

문 교사는 6분 여간 동영상을 시청한 후 아이들과 함께 수학책을 펼쳤다. 책 표지부터 머리말, 목차까지 꼼꼼히 훑고,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 단원들이 생소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대단원 '행시 짓기'로 모둠게임 시작

대단원은 행시 짓기로 시작된다. I 단원 '수와 연산'과 중단원 '소인수 분해', '정수와 유리수'로 2~5행시를 짓는데, 아이들의 참여가 가장 활발하다. 개인전과 모둠전으로 열띠게 펼쳐지는 가운데, 수행평가에 반영되는 성공 도장이 보상으로 주어진다. 발표를 할 때면 1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의 손이 번쩍 올라간다. 그 때마다 교사는 학생과의 단체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 발표자를 뽑아 아이들은 놀이를 하듯 신나게 손을 든다. 민영이는 유리수로 3행시를 선보였다. 반 아이들은 운을 띄웠다. “유~” “유리구슬처럼” “리~” “리(이)쁜” “수~” “수학하는 나” 까르르 웃음이 터지고 뛰어대한 이도 나섰다. 평소 수학에 자신이 없던 대한이도 이때만큼은 스타다. 응변가처럼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유~래카 리~듬타고 수학을 잘하자!”라고 목청껏 소

01 02 04 긍정적 수학문화운동으로 이뤄진 계몽포스터, 표어, 만화 제작 과제 수행 결과물
03 1:100 단체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를 선정한다.





- 05 단원 행시 짓기 발표
06 모둠수업을 원칙으로 협력학습이 수업 내내 이뤄진다.
07 모둠퀴즈로 진행된 종이접기 결과를 확인하는 학생들
08 학습태도와 발표에 따라 성공도장이 보상으로 찍힌다.

리를 높이자 가장 큰 박수가 터진다. 민 주는 “유리잔 3개에 대한 리어카의 비를 수로 말해보아라”라는 이색적인 답을 내놨다. 문 교사는 “창의적이네요. 행사로 문제를 제시한 건 처음”이라 칭찬하고 성공 도장 3개를 찍어 주었다.

정답이 없는 기발한 발상과 표현력은 단체전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3-5명의 모둠원은 최고의 행시를 뽑는데,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냈다. 7모둠은 가장 긴 ‘소인수분해’ 5행시를 서로 머리를 맞대 완성했다. ‘소’와 ‘인’을 잇다 막힌 ‘분’과 ‘해’는 모둠원 간 브레인스토밍으로 이어져 ‘소인수분해는’이라는 문구가 만들어졌다.

분주하게 손을 움직이며 종이를 접는 아이들. 이어진 두 번째 퀴즈는 접은 종이에서 몇 개 도형이 만들어졌는지 묻는 문제다. 아이들은 일일이 하나씩 도형을 세는 사이 접는 횟수에 따른 수의 규칙을 발견해 낸다. 문 교사는 수와 연산에서 다루는 거듭제곱의 개념을 설명하고, 7번은 2의 7승만큼 도형이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흥미유발 방법”이라며 “수학을 잘 못 하는 학생들도 빛을 발한다.”고 말한다.

블록타임 모둠게임으로 재미 UP

수업은 내내 모둠별 협력학습으로 이뤄진다. 블록타임으로 진행되는 2차시 동안 3단계 모둠퀴즈는 아이들의 흥미를 더욱 높인다.

“종이를 규칙에 따라 가장 많이 접어 봅시다. 정확하게 반으로 접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 1분. 가장 많이 접는 조가 승리합니다.”

분주하게 손을 움직이며 종이를 접은 아이들. 이어진 두 번째 퀴즈는 접은 종이에서 몇 개 도형이 만들어졌는지 묻는 문제다. 아이들은 일일이 하나씩 도형을 세는 사이 접는 횟수에 따른 수의 규칙을 발견해 낸다. 문 교사는 수와 연산에서 다루는 거듭제곱의 개념을 설명하고, 7번은 2의 7승만큼 도형이

생긴다는 것을 설명하자 아이들의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마지막으로 문교사는 또 하나의 퀴즈를 던진다. “7번을 접었을 때 1cm 두께의 종이를 무한대로 접을 수 있다면, 몇 번 접어야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인 38만km까지 뒹을 수 있을까요?” 심화탐구 문제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의 눈빛도 반짝인다.

“한 차시 수업일 때는 ‘재밌다’에서 끝났어요. 블록타임으로 모둠수업을 하자 더 심화된 모둠게임이 가능해졌고, 학습에 대한 몰입도도 높아졌지요. 모둠은 연간 3~4번의 변화를 주는데, 처음엔 자유롭게 앉다가 중간고사 후 모둠 안에 1~2명의 잘 하는 학생들을 포함하도록 했죠.”

수업시간에는 문 교사의 ‘띵동~’ 소리가 수시로 들린다. 수업시간 학생들이 발표를 하거나 모둠게임에서 이겼을 때 나는 소리다. 이때 성공 도장 개수에 따라 스티커가 부여되는데, 이는

수행평가에 학습태도로 반영된다. “엄격한 상벌제를 통해 수업을 이끄는데, 30명 가운데 1~2명 빼고는 모두 ‘A’를 받을 정도로 학생들의 태도가 좋다.”고 문 교사는 설명한다.

수학실은 학생들의 발표의 장

수학교실은 학생들의 작품들로 꾸며져 있다. ‘무당집’이라 불릴 정도로 연간 다양한 활동수업 결과물이 눈에 띈다. 학기 초 ‘불지옥’이라 명명했던 수학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달리지는 모습도 엿보인다. 교실 칠판 옆 ‘솔직히 가끔은 수학이 재밌다’는 표어는 전교 수학 꼴찌 학생의 작품이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수학적 결과물을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시험 후 진행되는 수학수업 계몽포스터 그리기는 수학은 어렵지만 수학수업은 재미있다는 주제로 열리는데,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이 많아진다

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모둠별 모델 1명을 뽑아 정강이뼈로

미래 키를 측정해 보거나, 조선 왕조들

의 재위기간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표,

학교폭력 예방 수학표지판 등 활동수

업도 다채롭다. 이들은 “수학에 대한 내

가 갖고 있는 거부감이 없어진 것 같

다.”, “무언가 알고 싶어지면 잘 이해

가 안 되도 끝까지 다시 하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15년차 교직경력의 문 교사는 “7~8년

된 수학교사 스터디모임이 수업 변화

의 원동력이다. 지금은 수학의 의미 찾

기와 함께 고민 중”이라며 “전체가 깨

어 있고, 몰입할 수 있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말한다. ☐

문영임 교사의 ‘긍정적 수학문화운동’ 진행하기

① 모둠수업을 원칙으로 서로서로 배려하는 협동수업을 목표로 한다.

② EBSMath를 활용한 수업으로 긍정적 수학문화운동 전개하기

긍정적 수학문화운동	EBSMath 활용 프로그램	비고
파이데이(3.14) 행사	▶ Why Math? ▶ 1500년전 기아소녀의 키는 어떻게 알까? ▶ 지하철역은 공평하다? ▶ 강남스티얼 클릭수로 알아본 상대도수	2시간
시험 전 소감적기-사명선언문	▶ 찾아가는 실험 ▶ 워터콘의 비밀 ▶ 미니 노이방주	30분
활동수업-뼈 측정을 통해 나의 신체나이를 파악하라!	▶ Q드럼 이야기 …	2시간
수학수업 계몽포스터 그리기 대회		1시간
금융수학 경험하기		1~2시간
도형정복 - 행복한 학교 설계하기 움의 겉넓이를 구하라!		각 2시간

③ 모둠게임으로 팀워크 다지기

④ 학기말 ‘수학적 아이디어 케이크 만들기’ 등의 행사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 공유하기

탐라지리교육연구회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알린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산도인 제주도는 지질학적인 가치는 물론,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아 무척 매력적인 땅으로 꼽힌다. 제주지역 중등 지리교사가 중심이 되어 활동 중인 탐라지리교육연구회는 제주도의 자연유산을 알리기 위해 20년을 힘차게 달려왔다.

강만익 제주 중앙여고 교사는 “한라산 백록담, 거문오름, 성산일출봉, 만장굴 일대 등 세계적 자연유산인 제주를 알리고 있다. 지질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수월봉 응회환층, 산방산 용암원정구와 용머리 해안 응회환층, 서귀포 총, 산방산 등 제주도 곳곳을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라고 설명한다.

탐라지리교육연구회가 스무 해 가량 연구해온 자료는 향토자료로서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한 지역화교재 <느영나영 훈디 발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부문의 집필도 연구회에서 맡았다. 현재 제주도의 부속 섬인 추자도, 비양도, 차귀도, 가파도, 마라도, 범섬, 우도, 다려도에 대한 답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결과물을 지역화 교재로 만들어 제주 이해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지역의 학생들에게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제주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해마다 여름방학에는 제주도의 지질,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기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주사랑 지리캠프’를 열고 있다. ‘사제동행 지리답사’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진로교육에서 앞장서고 있다. ‘어디서나 탐내는 지리교사가 되자’는 것이 연구회의 모토다. 좋은 수업을 위해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수업컨설팅에 주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연구회는 기념 달력도 발간하였다.

강만익 교사는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오름(측화산)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답사하여 화산지형 수업자료를 개발하겠다.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리 답사 프로그램 운영자 초급과정 연수, 학생 활동 지원을 위한 소논문발표대회, 사제동행 답사, 독도 과거대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지역 : 제주지역

대상 : 중·고등학교 지리교사 및 일반사회교사 중
지리에 관심 있는 교사
대표 : 강만익(제주 중앙여고 교사, orum368@empas.com)

파이데이아합창단

아름다운 노랫말이 들려주는 하모니

학생들이 하교한 조용한 학교에 파이데이아 합창단의 화음이 울려 퍼진다. 40여 명의 합창단원들은 매주 화요일 식사도 거른 채 연습을 위해 서울청계초 강당에 모여든다. 기초발성부터 시작하여 2시간 동안 합창 연습에 빠져

든다. 이들은 서울 북부지역 중심으로 노래가 좋아서, 합창이 좋아서 모인 초·중등 선생님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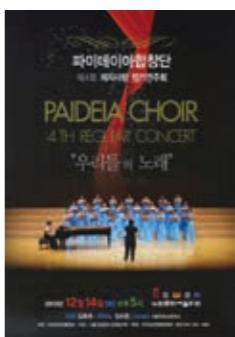
유애경 서울청계초 교사는 “노래가 좋아, 합창이 좋아 순수하게 모인 분들이에요. 합창의 매력에 빠져 만삭이 되거나 아기를 안고 와서 합창 연습을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결혼 전부터 합창단에 참여한 한 선생님은 이제는 4살이 된 아이까지 데리고 와 연습해요.”라고 말한다.

단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생님들과 합창의 매력을 나누자는 뜻에서 3년 전부터 직무연수를 개설했다. 1년에 2차례, 30시간의 연수를 통해 선생님들이 직접 노래를 불러보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연수를 왔다가 합창단원이 된 선생님들도 많다.

‘파이데이아’는 고대 그리스의 교육사상을 일컫는 말



로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원들의 마음을 담고 있다. 2007년 시작된 합창단은 매년 12월 정기연주회를 열고 3~5명의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음악을 통해 제자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밖에도 함께 연습을 하며 전국대회 무대에서 올라 우수한 성과를 보고주고 있다. 지난해 열린 태백전국합창대회에서는 42팀 중 5위로 동상을, 지난해 대회에서는 26팀 중 2위로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의정부 예술의전당 첫 무대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 연주회를 열고 있는 합창단은 현재에는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과 같은 큰 무대에서 동심을 담은 동요를 비롯하여 가곡, 클래식, 성가,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하고 있다.

단원들은 각자 학교에서도 합창을 학교교육에 전파하고 있다. 아름다운 노랫말과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자신의 음을 책임지고 화음을 위해 절제하며 배려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인성이 바른 아이를 길러내고 있다. 합창단은 올해, 소년원, 아동병원 등 찾아가는 연주회를 통해 재능 나눔도 이어갈 계획이다. ②



지역 : 서울 및 경기지역

대상 : 교사 및 교사의 마음을 품고 헌신하는 모든 분,
음악을 사랑하는 분
대표 : 유애경(서울청계초 교사, 02-949-2824)

최달진 인천 만성중학교 교사

SNS로 소통하는 갓 쓴 선비 선생님

고운 빛을 내는 분홍비단 배자. 소매 아래 부분을 둥글린 배래선과 넉넉한 바지 품을 단단히 여민 대님이 한복의 맵시를 살린다. 머리에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이어져 온 대표적인 관모인 갓을 쓰고 턱 아래 끈으로 단단히 묶었다.

일명 '갓 쓴 선비'로 불리는 인천 만성중 최달진(51) 교사의 첫인상이다.

"갓을 쓰면 마음부터 새롭고, 흐린 것들도 또렷해지는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문을 가르치면서 선비정신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되고, 학생들도 흥미로워하면서 때론 엄숙해지는 효과도 있지요. 타 교과와 확연히 구별되는 잠재적 교육효과도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집 근처 향교에서 한문공부를 시작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방학 때면 향교에서 공부를 했고, 단국대 한문교육과를 진학한 후 대학 1, 2학년 때 서당공부를, 군 제대 후에는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구원에서 수학했다. 이러한 경험은 교단에 들어선 얼마 후부터 두루마기와 전통한복을 갖춰 입는 계기가 됐고, 개량한복

01 직접 쓴 서예 족자: '오늘도 사랑해 널 더 많이는 그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02 20여 년간 한복을 입고 교단에 선 최달진 교사
03 앱을 활용한 스마트 한문수업
04 담임을 맡은 1학년 2반 아이들과 최달진 교사 미니 박물관으로 꾸민 교실이 눈길을 끈다.
05 매년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학급문집 글쓰기를 강조해 온 그는 학급문집을 '글저금통'이라 부른다.

으로 바꾼 후부터는 더욱 자주 입고 학생들과 만나고 있다고. 2010년 4월 우연히 지리산 청학동에서 사온 유건을 쓴 이후로 이제는 갓과 서당 훈장들도 썼던 정자관을 쓰고 있다. "유건을 썼던 날 아이들이 무척 신기해하더라."는 그는 "자주 접하다보면 옛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수업의 호기심으로 확대된다."고 말한다.



아이들과 소통은 스마트하게~

그가 담임을 맡은 1학년 2반 교실은 미니 박물관을 연상케 한다. 항아리, 도자기, 미니 지게, 미니 징, 갓, 볶과 벼루, 효자손, 사군자 족자, 딸랑이 등을 전시해 놓았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볶 펜으로 쓰도록 권고할 정도로 보고 느끼는 한문교육을 하면서도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식에서는 옛 것만 고집하지는 않는다.

SNS를 통한 아이들과 소통은 수시로 이뤄진다. 반 카톡방 일일 이벤트와 과제도 남다르다. 교과 선생님과 사진 찍어 올리기, 선생님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등은 즐거운 학교 생활을 만드는 소소한 재미다.

무엇보다 수업에서도 그는 스마트기기와 멀티미디어자료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교사로 꼽힌다. 지난해는 자체 제작한 UCC 감성교육, 팀뷰어를 활용한 스마트앱 한자 짹 맞추기 게임 등 앱을

활용한 스마트 한문수업을 이끌었다.

"고전의 함의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필요와 더불어 아이들의 흥미와 창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용+전통'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어떤 느낌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하지요."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한문수업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무릎 꿇고 공부해 보는 '서당공부 따라잡기', 전통문화 체험학습인 '한복입고 수업 해 보기', 한석봉처럼 공부해 보는 '운동장에 한자 쓰기' 등등 매우 다채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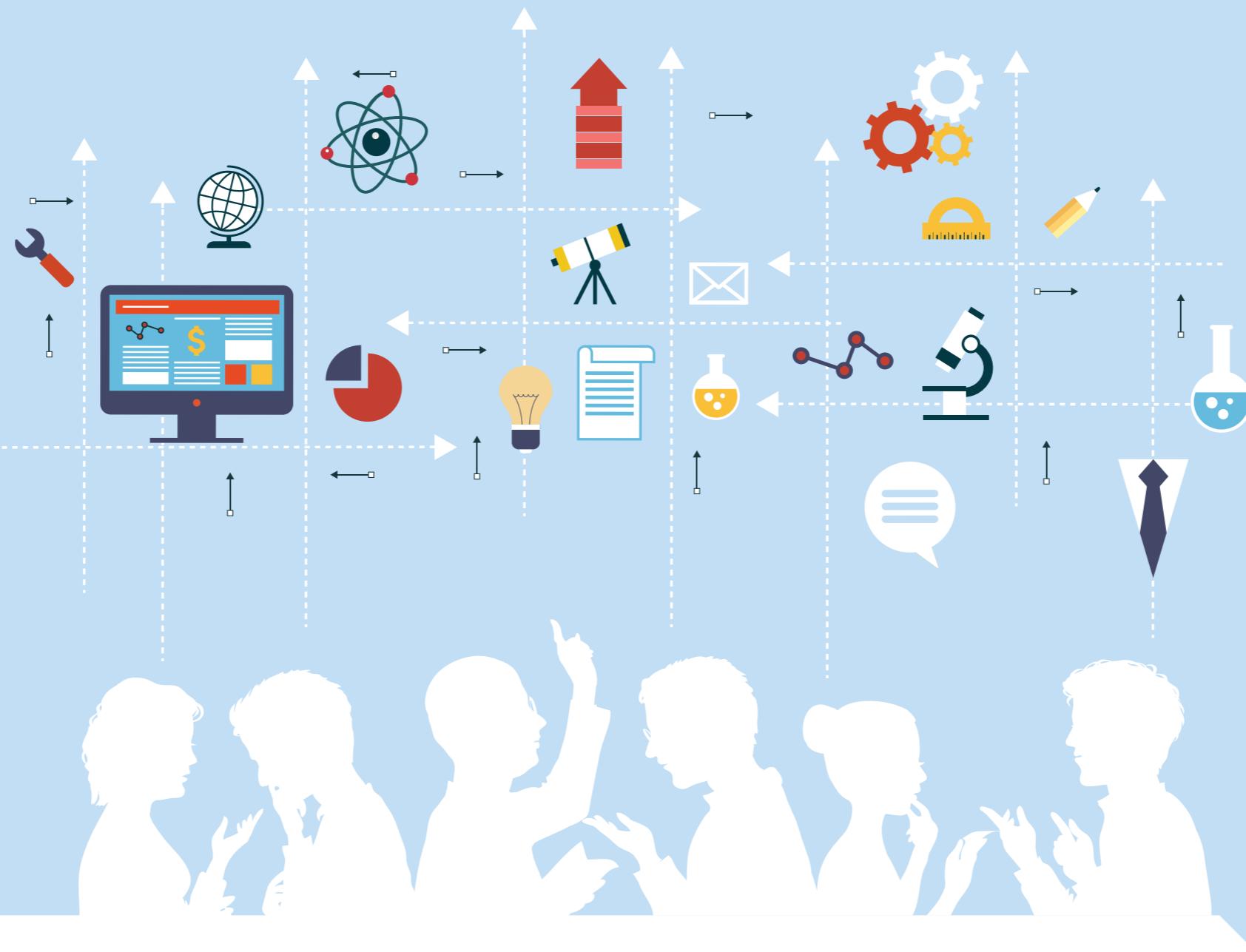
아이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학급문집

매년 학생들에게 선물하는 학급문집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 '봉사하자'는 의미로 올해 36번째 문집을 완성했다.

담임을 맡은 반 첫 번째 학급문집도 곧 완성을 앞두고 있다. 학급 아이들의 자기소개서뿐 아니라 남녀교대로 순번대로 써내려간 학급일기에는 매일 매일의 소소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최 교사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증명사진을 찍어 사진첩을 만들고, SNS를 통해 그간 소통했던 대화 기록들도 전부 문집으로 묶었다.

퇴직 후에는 사이버 상에 '달찌니네 학교박물관'을 운영하고 싶다는 최 교사. 해마다 모은 사진, 문집, 영상 등을 온라인에서 운영하면 많은 제자들이 그때 그 시절을 함께 추억할 수 있으리라 소망한다. ☺

즐기고 소통하는 창의적 과학교육



이제는 과학도 소통이 핵심이다

꿈과 행복을 위한 과학교육 실현
‘과학교육종합계획’

학교는 ‘과학적 환경’으로 속속 탈바꿈

과학을 ‘즐기고, 누리고, 나누는’ 창의적 과학교육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과학교육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계획은 ‘모든 이를 위한 과학(Science for All)’을 강조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학생, 교원, 학교, 사회가 어우러져 과학을 함께 즐기고 배우는 창의적 과학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과학을 즐기고, 과학으로 소통하는 창의적인 과학교육의 모습을 살펴본다.

이제는 과학도 소통이 핵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과학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도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서 혼자 열심히 실험하는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현대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는 모습은 이런 이미지와 크게 다른 경우가 많다. 우선 과학연구의 규모가 대단히 커져서 혼자 중요한 연구를 하는 일은 흔치 않다. 한 예로 이번에 중력파를 최초로 관측한 LIGO(Laser Interferometer Gravitational-Wave Observatory) 연구단에는 15개국에서 1,000명이 넘는 과학자가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실험 데이터를 측정하는 장치 부근에는 가보지도 않고 멀리서 데이터 분석에만 참여하는 과학자도 많은 것이다. 이처럼 거대한 연구팀의 경우에는 당연히 연구원들 간의 소통이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모든 연구원들이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서로 협조해가며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과학 연구에서 소통 능력은 필수 조건

규모가 큰 연구팀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현대의 모든 과학자들에게 소통 능력은 필수적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어느 학술지를 펴보더라도 (수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자가 1~2명인 경우는 별로 없고 심지어 저자가 10명이 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이러한 현상이 생긴 원인으로 우선 학제 간 연구를 들 수 있다. 현대의 중요한 연구들은 대개 물리학과 생명과학, 화학과 지질학처럼 서로 다른 학문분야 간의 협동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저자 수가 많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소통 능력이 필수적이다.

학문 분야가 다르면 쓰는 학술 용어 부터가 달라서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학제 간 연구를 이끌기 위해서는 자기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용어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수준이 되어야하고, 또한 자기의 아이디어를 다른 분야 학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소통의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를 마무리한 후, 그 결과를 다른 학자들에게 알리는 데에도 소통 능력은

필수적이다. 현대의 국제 연구계는 매우 경쟁적이어서, 좋은 업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학자들에게 알리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기에 주요 학술지에서는 논문의 형태, 기술 방법, 선행 연구결과의 적절한 인용 등에 대해서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일반인들에게 연구의 의미와 파급효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미리 준비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결과를 동료 학자들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도 소통의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소통 능력이 좋아야 과학자 사회에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과거처럼 괴짜 과학자들이 남아 알아듣건 말건 자신만의 언어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과학자들의 '인문학적 소양' 필요

과학자들의 소통 능력이 중요한 또 하나의 영역은 과학 대중화 부분이다. 주지하다시피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 문제나 에너지 부분에

거대한 연구팀의 경우에는 당연히 연구원들 간의 소통이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모든 연구원들이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서로 협조해가며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도 과학기술의 영향력은 매우 막강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에너지나 환경 등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과학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를 자기 지역에 유치할지 여부는 그 지역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결정이므로, 근거 없는 협소문이나 악선전(惡宣傳)에 흔들리지 않고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과학지식을 일반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과학자들의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국가가 과학연구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

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과학자들의 노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과학의 대중화 노력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 과학자들의 '인문학적 소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문과(文科)·이과(理科) 분리교육 때문에 과학자들의 인문학적 소양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학기술자 중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을 쓰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인기 있는 과학대중서를 집필하다 하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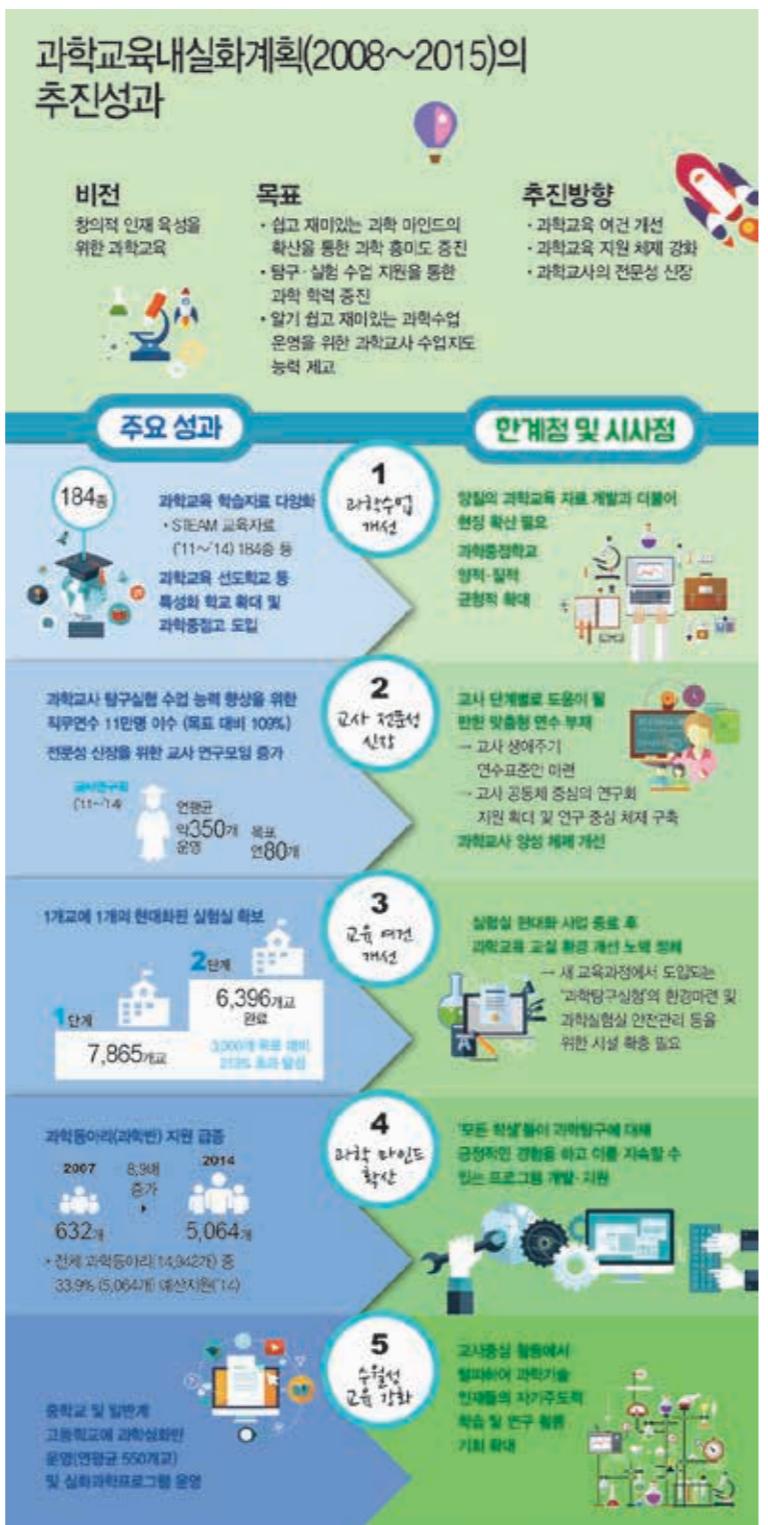
꿈과 행복을 위한 과학교육 실현 ‘과학교육종합계획’

2016년 2월 26일, 과학교육종합계획(2016~2020)이 발표되었다. 과학교육종합계획이 발표되자 대부분 언론사들은 ‘거꾸로 과학교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하지만 과학교육종합계획에는 거꾸로 과학교실을 비롯하여 학생, 교원, 학교, 사회가 어우러져 과학을 ‘스스로’, ‘즐기며 배우는’ 창의적 과학교육 분위기 조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과학교육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과학을 ‘즐기고’, ‘누리고’, ‘나누는’ 행복한 과학교육이라는 비전 아래에 3대 추진목표-7대 추진전략-15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과학을 ‘즐기는’ 모두를 위한 과학교육

과학교육종합계획의 대표적 핵심과제 중 하나는 작년 9월에 고시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이를 위한 과학(Science for All)’의 정신이 교과 교육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과학탐구실험 과목을 대비한 과학교구·설비기준안 마련(16) 및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과학탐구실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18~)할 예정이다.



과학교육종합계획은 과학교실을 비롯하여 학생, 교원, 학교, 사회가 어우러져 과학을 ‘스스로’, ‘즐기며 배우는’ 창의적 과학교육 분위기 조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과학을 ‘즐기고’, ‘누리고’, ‘나누는’ 행복한 과학교육이라는 비전 아래에 3대 추진목표-7대 추진전략-15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과학을 ‘스스로’, ‘즐겁게’, ‘거꾸로’ 학습하고 도전하는 과학적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과학 공정경험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대표적으로 거꾸로 과학교실 등 ‘학생 능동 수업’ 도입을 통해 학생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실 수업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모든’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가정환경, 성별, 장애에 관계없이 ‘과학 재능과 꿈을 가진’ 아이를 행복한 과학기술인의 길로 이어주는 ‘사다리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실패를 통해 스스로 배우는 자기주도형 ‘스스로 과학동아리’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메이커 활동¹⁾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의 청소년 창작·제작 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과학 분야에 우수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며, 연구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몰입할 수 있도록

1) Maker Education Initiative 사례 : 오바마 대통령의 ‘Educate to Innovate’ 캠페인에 따라 메이커 활동과 연계, 학생의 수·과학 실력 향상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교육 프로그램

록 과제연구 및 연구교육(R&E, Research & Education) 프로젝트 학습 환경을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과학중점학교의 특성화모델을 개발하여 교육부 운영 과학중점학교와 교육청 주도의 자율적인 과학중점학교를 포함하여 '19년도까지 200개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과학을 '누리는' 창의형 과학교육환경

두 번째 추진목표는 학생들이 즐겁게 스스로 학습하기 위한 창의형 과학교육 환경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학교 환경 개선 측면에서는 기존의 과학실을 첨단 과학실험 및 STEAM 탐구활동이 가능한 창의융합형 과학실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창의융합형 과학실은 미래형 과학교실에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체험 실험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첨단과학기술과 미술, 음악, 인문학 등이 융합한 첨단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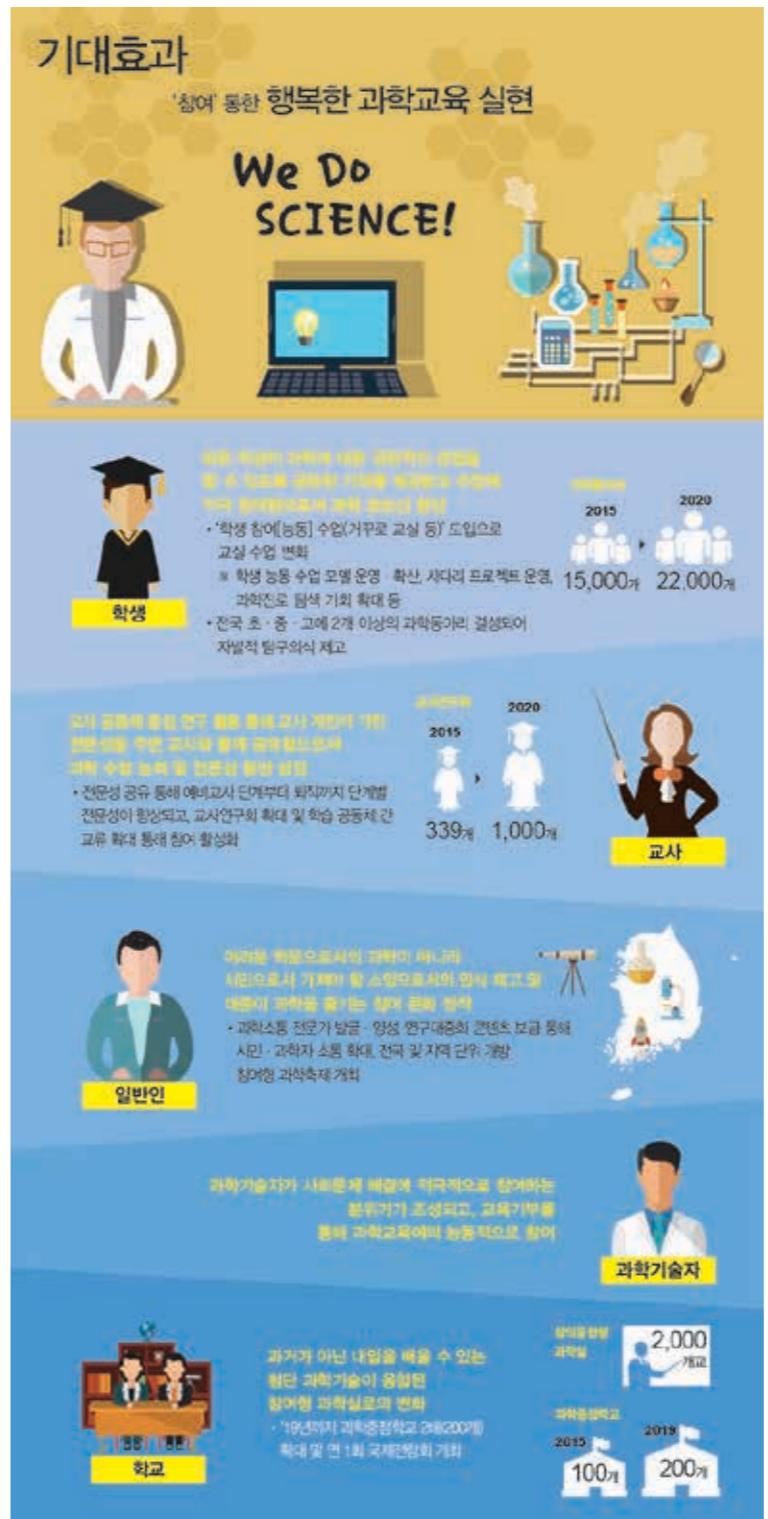
교사 전문성 신장 측면에서는 예비교사 단계부터 전문성을 신장하고, 과학교육 인프라 연계를 통한 과학교육 지원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인 과제로 과학 분야에서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기준 및 소양을 정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과학교육 기준을 마련하는 '미래세대 과학교육 표준'을 개발하여 과학교육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과학을 세상과 '나누는' 과학친화적 사회

세 번째 추진 목표는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과학을 문화로 체험하는 과학교육을 지향하였다.

학생들이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과학관련 이슈 등을 통해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역할을 실생활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적 가치 판단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



과학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 교사 및 전문 기관의 교육기부 활성화를 지원하여 과학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참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전문가와 대중의 소통 기회 확대, 평생학습 관점에서 과학문화 사업 전개 등 과학교육의 기반을 다진다.

여 미래세대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과학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 교사 및 전문 기관의 교육기부 활성화를 지원하여 과학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참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전문가와 대중의 소통 기회 확대, 평생학습 관점에서 과학문화 사업 전개 등 과학교육의 기반을 다진다.

이번 과학교육종합계획은 과학교육계 뿐만 아니라 과학계, 인문계, 예술계, 산업계 관련 대표급 전문가의 자문과 교육청·학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완성되었다. 그만큼 사회에서 기대하는 과학교육의 방향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과학교육종합계획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기르고 수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과학 효능감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계획이 현장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다. ②

학교는 '과학적 환경'으로 속속 탈바꿈

경기 안양 부흥고(교장 최승복) 무한상상실

3D프린터 5대, 레이저커터기 등이 구비된 이곳에서 학생들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각종 3차원 도면을 설계하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 도전이 쉼 없이 이뤄지는 곳이다. 3학년 정준원, 정현우 군 등은 지난 몇 달간 팀을 이뤄 드론을 만들었다. 몸체부터 각 날개 등을 3D프린터로 만들어 내고, 엔진을 달아 하늘로 날렸다. 정준원 군은 “드론을 만들 때 날개 하나하나 3D로 프린트하면서 몇 달간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했다. 뿌듯하다.”며 웃는다.

3D프린터를 활용하는 과학동아리 후츠파(chutzpah)는 단골손님이다. 지난해 연필통, 컵 등 생활용품부터 미니 건축물 등에 이르기까지 수십 개를 정교하게 만들어 냈다. 히브리어로 ‘담대함’, ‘저돌성’ 등 특유의 도전정신을 뜻하는 후츠파의 활동은 무한상상실의 기본 정신과 맞닿아 있다. 길윤상 자연 과학부 부장교사는 “올해로 3년째 운영 중이다. 교실의 1/4 크기의 좁은 공간이지만, 아이들은 이곳에서 더 큰 꿈을 꾼다. 실제 과학적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주제를 연구하는 등 이공계열 진



01

하는 메이커 활동은 학생들의 과학적 상상과 호기심을 높인다.”고 말한다.

과제연구 중심 과학중점학교 확대

부흥고는 올해 7년차 된 과학중점학교다. 과학(4), 수학(4) 교과별로 총8개의 전용 교실이 구축돼 있고, R&E·과학탐구반 등을 통해 이공계열 심화탐구가 이뤄진다. 특히, 수학·과학 수업 단위의 비중이 전체 45% 정도로 일반 계 고등학교 30%보다 월등히 높다. 지난해부터는 ‘융합 인재’ 육성을 목표로 문·이과 학생이 연구팀을 이뤄 융복합적인 주제를 연구하는 등 이공계열 진

로에 필수적인 협동연구도 강화하고 있다. 길윤상 부장교사는 “학생 스스로 연구주제를 정해 프로젝트를 완성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교수님을 직접 섭외해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꿈을 가진 친구들이 적었지만, 이제는 1학년이 마무리되기 전에 자신의 진로와 계열을 정하는 학생들이 많아 진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경남 진주제일여고(교장 주용태)는

01 경기 부흥고 무한상상실
02 영암중 스마트과학실험실 수업
03 증강현실을 활용한 과학수업



국내 첫 과학중점학교 중 하나다. 2009년 교육부 지정 이후, 수학·과학 교육을 강화해 오며, 여학생들의 이공계열 진학을 돋고 있다. 이곳에서는 특히 소규모 그룹 형 과학탐구 활동으로 톡톡히 성과를 거뒀다. 3인 모둠으로 내실화된 과제연구 수업을 진행하고, 교사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으로 연구·탐구를 진행하며 연간 각종 경진대회, 탐구올림피에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해는 ‘졸음을 깨우는 냄새와 그 활용방안’, ‘바닷물 속에서 빛이 멀리 나가는 손전등에 대한 연구’, ‘상품 가치가 떨어진 작물/식물을 이용한 잉크 제작’ 등 다양한 연구 과제를 선정,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예비과학중점과정반(J-Marie Process). 1학년 2학기 때부터 과학중점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과학탐구 이론 및 실험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2학년 진급 후에는 곧바로 실험과 탐구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 운영함으로써 효과를 높였다.

이러한 과제연구 중심 과학중점학교는 이공계열 인재를 길러내는 한편, 과학적 탐구와 호기심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과학

꿈나무들의 저변을 더욱 넓히기 위해 2016년 현재 112교 운영에서 2019년 까지 200교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스마트한 과학실 구축

디지털 시대에 맞게 첨단 과학기술도 ‘즐거운’ 과학을 이끄는 한 축이다. 스마트한 과학실에서 아이들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만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빅데이터로 활용하기도 하고, 동물 해부 실험은 가상컨텐츠로 경험해 볼 수 있다. 전남 영암중(교장 문광일)은 수학·과학 ICT 및 스마트 과학실험실이 구축된 대표적인 농어촌 학교다. 이곳 학생들은 야외 탐구 수업 시 디지털 탐구 도구를 적극 활용한다. 자외선 센서, 미세먼지 농도 측정기, 디지털 내시경 카메라, 휴대용 디지털 현미경, 디지털 기상 데이터 측정기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자연 탐구 활동에 나선다. 교실 수업에서는 저마다 주어진 사물인터넷(IoT) 정보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디지털 측정기 기로 속속 데이터를 수집한다. 기술이 과학적 창의력과 융합되자 과학수업은 더욱 즐거워졌다. 교육부는 과거가 아닌 오늘과 내일을 배울 수 있는 첨단과학 환경 구축을 위해 모델 개발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황 교사는 “검색만 할 수 있으면 정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시대다. 교사가 지식전달자일 필요가 없다.”며 “협력을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야말로 바로 선생님들이 만들어야 할 미래형 인재”라고 강조했다. ☎

창의융합형 교사로 변모

미래형 교실에서는 교사들의 변화도

교육부는 2011년 '초·중등 독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독서교육이 학교생활에 스며들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책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고, 꿈과 끼를 키워주는 독서교육 정책과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독서교육



‘첫 만남을 책과 함께’ 책 읽는 입학식

지난 3월 2일, 남춘천중학교(교장 안다선)에서는 아주 특별한 입학식이 열렸다. 책과 함께한 첫 만남, 바로 '책 읽는 입학식'이다. 체육관에서 진행된 입학식에서는 신입생들에게 책 꾸러미가 안겨졌고 재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들이 준비한



축하 영상 메시지가 전해졌다. 축하
시 낭송과 함께 모두가 함께하는 아
름다운 독서 서약도 진행됐다.
책 읽는 입학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
다. 학교도서관을 둘러보고 교실에 들
어선 신입생들에게 담임선생님은 직

접 책을 읽어주었다. 3년간 생활하게 될 학교와의 첫 만남은 이렇게 책과 함께 하는 배움으로 시작되었다. ‘책 읽는 입학식’은 강원도교육청에서 2013년부터 지원해온 사업으로, 올해에는 도내 중·고등학교 52개교

에서 진행했다. 각각의 학교마다 색다른 입학식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의미 있는 입학식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한 번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학생, 학부모, 교사 독서동아리가 만들어지는 등 학교 차원의

독후 활동 지원이 이루어지면
독서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
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시
학식. 그 첫 만남이 학생들의
활기찬 일상으로, 책과 함께
장으로 이어지길 응원한다.



한 권의 책, 천 개의 생각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독서교육 비전은 ‘스스로 읽고 함께 생각하는 독서교육’이다. 누군가 억지로 권해서 읽는 것이 아닌 스스로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누는 독서교육을 지향한다.

2016학년도의 광주광역시교육청 독서교육 중점 추진과제는 세 가지이다. 제일 우선 과제는 단위 학교의 독서교육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의 여러 교육 활동과 독서교육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고전(단순히 옛날 서적만이 아닌, 고금과 동·서양을 막로한 분야별 대표 명작(classic)

도서) 읽기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학교 스스로 해당 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고전 도서를 안내하도록 하고, 구입 도서의 5% 이상이 ‘고전 및 인문학’ 도서가 되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국어과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고전 읽기 지도를 연계하

A photograph of four young men sitting around a wooden table in a library. They are all holding dark-colored copies of the book 'The Art of War' by Sun Tzu. The library has wooden bookshelves filled with books in the background.

두 번째 추진 과제는 독서교
육 지원 체제 구축이다. 현
장 교사들의 논술 교육 연
수 모임인 광주토론토론술교
육 아카데미와, 독서 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광주독서
교육지원단이 광주 독서교육 지원 체

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인 ‘고전
서 길을 읽다!’를 초·중·고 급별 각
회, 총 6회로 새롭게 기획 중에 있다.
편 11년째를 맞는 ‘2016 빛고을 독
마라톤’은 관내 학생과 광주 시민
이 매년 79000여 명 이상 참여하

데, 4월 8일부터 신나게 달리기 위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
있다.

밖에도 교육부와 함께하는 학생 책
기 동아리, 교사 독서교육연구회 등
선생님들의 큰 호응 속에 계속 이
질 예정이다.

주광역시교육청 슬로건의 시작인
질문 있는 교실'은 여러 가지 다른 생
에서 출발한다. 한 권의 책을 읽고
1 개의 다른 생각을 하는 학생들, 그
을 스스로 읽고 천 개의 생각을 다
이 나누고 함께 하는 학생들이 넘치
- 교실들. 광주의 독서교육이 지향하
- 소망하는 '행복한 학교'이다.

책 읽기를 넘어 삶을 위한 글쓰기

대구는 어제도 책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오늘도, 내일도 책으로 시작한다. 대구 독서교육의 역사는 깊다. 독서가 모든 교육의 기본이며, 책을 통해 행복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책을 진행했다. 2005년 아침독서 10분 운동으로 시작된 책읽기 정책은 2008년 북스타트 운동으로 영·유아 책읽기로 진행되었고, 2010년부터는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으로 시민 책읽기로 확대되었다. 2014년부터는 심화된 책읽기 방법으로 인문학 책읽기가 자리를 잡았다.

2007년부터는 읽기를 넘어 쓰기를 통한 독서활동을 위해 '삶을 위한 글쓰기' 정책을 실시하여 글쓰기 워크시트 8종을 개발하여 보급했고, '삶쓰기 100자 노트'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한 노력은 '학생저자 10만 양성을 위한 책쓰기 정책'으로 발전하였고, 7만여 명의 학생 저자와 162권의 학생 저자의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전국 최초로 문예창작영재교육원을 운영하여 미래의 작가들을 위한 교육도 시작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대화가 필요한 아이들의 소통을 위해 2011년부터 '어울토론'이라는 토론 프로그



2015 학생저자 책 축제



교육가족 토론 어울마당

램을 개발하여 대구를 토론의 도시로 만들었다. 지금 대구는 인문학의 열기로 가득하다. 독서활동이 전제된 인문교육은 스스로 자기를 찾아가고 타인과 소통하며 공동체와 더불어 행복한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3월에는 '주제탐구 세미나', 6월에는 '학생저자 책출판 기념회 및 가족 책쓰기 캠프', 8월에는 '대구교육가족 토론 어울마당', 10월에는 '인문학 독서토론 한마당', 11월에는 '학생저자 전국 책축제'가 개최되어

1년 내내 책으로 행복한 대구의 풍경이 그려진다. 현재 대구에는 초·중·고 총 1,300여 개의 독서 및 인문교육 관련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으며, 1500여 명의 독서 및 인문교육 교사지원단, 120여 명의 학부모지원단이 독서교육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다. 모든 활동은 자발성이 전제된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가 행복한 정책, 아이들이 즐거운 교육의 중심에 독서가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이제 대구의 독서정책은 전국의 독서정책이 되고 있다. 공유와 창조를 정책 철학으로 하고 있기에 다른 시도 교육청의 교사나 학생들도 누구나 행사를 참관할 수 있으니 모두 대구를 방문하여 대구의 독서교육을 더불어 즐기면 좋겠다.

행복독서운동 '올해의 책' 선정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내 4개 공공도서관(울산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6 도서관과 함께하는 행복독서운동'의 '올해의 책'으로 어린이도서 『으랏차차 뚱보클럽』(전현정·비룡소), 청소년도서 『벙커』(추정경·다산북스), 성인도서 『딸에게 주는 레시피』(공지영·한겨레출판) 등이 선정되었다.

공공도서관은 2016년 '올해의 책'을 선정하기 위하여 교사, 사서, 문인, 언론인, 교육청 관계 전문가 등으로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울산시민을 비롯 각급 학교 교사,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및 독서회에서 추천을 받은 책을 대상으로 2차·3차에 걸쳐 심도 있는 회의 후 세대별 3권씩 총 9권의 후보도서를 선정하였다.

후보도서를 대상으로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표와 교육청과 4개 공공도서관 로비, 울산시내 일원에서 현장투표가 이루어졌다. 총 717명이 참여한 시민선호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3월 15일 울산중부도서관에서 개최한 4차 도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의 책'이 최종 선정되었다. '올해의 책'이 선정됨에 따라 4개 공공도서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독서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선포식을 시작으로 작가 초청강연, 북콘서트, 독서릴레이, 독서

토론회, 독후감상문 공모, 올해의 책 추가대출 이벤트, 학교·작은도서관·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는 낭독&토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가 계획되어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중부도서관 독서진흥팀(052-210-6591)으로 문의하면 된다.



Book적 Book적 독서놀이터



도서관 카페

부산 신정초등학교(교장 이장호)는 "함께 소통하는 책 읽기"를 비전으로 학생, 교사,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채로운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교생 모두 북리더가 되어 1일 1회 도서관 활용의 생활화, 어디서나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독서놀이터(글마루 도서관, e-library 영어도서관, 열린 독서 마당 등)를 활용한 독서교육, 매일 아침 책 읽는 '북모닝 30!'을 통한 사제동행 독서시간 편성 등으로 스스로 책 읽는 습관을 기르고 있다.

신정초의 독서프로그램 중에는 학년별 필독·권장·고전도서 윤독,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주제별 계기 독서교육 등이 돋보인다. 또한 다독왕 선발, 독서토론, 북리더(어머니,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와 독서대화, 작가와의 만남 등을 운영해 학생들 스스로 독서 동기를 찾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학교는 책이 있는 가까운 곳을 방문하는 '책가방 활동'으로 정관어린이 도서관, 정관도서관 등 지역 도서관 텁방을 통해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독서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한편, 교사 독서동아리, 학생 자율독서동아리 등 독서를 통한 소통 나누기 문화도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독서 습관 정착 △자기주도적 학습력, 사고력 및 표현력 향상 △사교육 경감 △창의성과 인성 함양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15년 교육부 주최 '학교독서교육대상'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화작가인 이장호 교장의 남다른 독서교육의 실천으로 신정초 학생들은 문학 속에서 삶을 읽으며 스스로 꿈과 지혜를 키워가고 있다.

책 읽는 학부모가 아름답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가족과 함께 하는 독서문화 확산, 건전한 토론 문화 형성, 자기주도적 독서능력 신장을 위해 많은 독서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6년의 핵심 사업은 가족 간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가족독서 한마당」이다. 「가족독서 한마당」에선 학부모 독후 감상대회, 가족 독서문화기행, 가족 독서 토론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학부모 독후 감상대회」는 책으로 즐겁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가족 독서문화를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교·교육지원청·본청·지역사회와 연계해 추

진하고, 가족독서 감상문, 독서감상화,

독서체험극, 가족동화구연 등 다양한 주제를 공모한 뒤, 독후 감상 대회 발표회, 우수작품 자료집 발간을 통해 일반화할 계획이다.

「가족 독서 토론」은 경쟁보다는 상대

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

여 문제를 해결하는 가족공동체의식

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족과

도서와 관계된 문학관, 도서관, 고장

등 문학 탐방을 통해 작가의 작품 세

계를 이해하고, 독서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바른 인성과 가

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올해 새로 마련

하였다. 대전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를 대상으로 연 2~3회 추진되며, 학교

대전가양중 사랑의 책엽서

별 특색 있는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 연계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가족 독서 토론은 경쟁보다는 상대
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

여 문제를 해결하는 가족공동체의식

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족과

함께 책을 읽고, 책을 통해 소통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가족 간의 정을 느

낄 수 있는 행복한 책읽기 문화를 마

련하고자 함이다.

앞으로도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가족

과 함께 책으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독서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다.

독서토론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장만체 교육감 취임과 더불어 독서·토론수업은 전남교육의 역점과제가 되어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에 독서·토론수업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독서와 토론은 교육의 역사와 함께 종적·횡적으로 그 중요성이 단 한 번도 간과되지 않았음에도 독서와 토론이 하나의 융합 개념으로 재탄생되어 전남교육의 전면에 당당히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지금 학교 현장에 연착륙되고 있는가? 독서·토론수업은 초·중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며 인성교육을 함양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으로써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성과 유용성을 자랑한다.

첫째, 독서·토론수업은 독서를 기반으로 인터넷, 신문의 칼럼, 기사문, 교과서 제시문, 설명문,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만의 배경지식을 쌓는 것이다. 둘째, 위와 같이 체득된 「나의 생각」은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련의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게 한다.

셋째, 독서·토론수업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견해와 견주어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통찰력을 기르게 한다. 즉, 독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의미를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행위야말로 독서·토론수업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이 때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배려와 소통을 통해 인성교육과의 접목을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독서·토론수업의 목적은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하며,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고, 종합적

사고력을 배양하여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다.

독서토론 열차학교
독서토론 열차학교



충청북도 수곡중 학교(교장 이계원)는 읽는 기쁨과 감수성을 함께 나누는 독서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 특교 사업을 계기로 시작된 책쓰기 동아리 Book-ProjectBook(이하 BPB)는 인문 고전을 읽고 내용을 재구성하여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책을 직접 집필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BPB 동아리원 20명은 영미 문학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읽었다. 6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완역본을 차분히 완독한 뒤에는 1박2일 독서캠프를 열었다.

캠프에서는 독서토론, 19세기 음식 재현, 몸으로 표현하는 책 등 오감이 있는 활동이 펼쳐졌다. 특히, 1800년대 후반의 미국 소년(허클베리 핀)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책 속의 주인공의 일기를 재구성해 삽화가 있는 책을 직접 만들어 보는 이색 체험을 했다.

수곡중학교 3학년 마지막 학생은 “예전에는 책의 줄거리 파악하는 게 전부였어요. 지금은 동아리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허클베리 핀이 살던 시대로 돌아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를 상상하는 건 정말 재미있었어요. 선생님과 노예제 폐지와 동성훈 합헌 판결을 비교해 본 것이 기억에 남아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수곡중학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 ☺



자유학기제 '맘에 쏘' 학부모 토크콘서트 현장

‘자유학기는 꿈을 위한 투자의 시간’

시험 스트레스 없이 꿈과 적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부산 유락여중 박서영 양의 말에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눈과 귀가 쏠렸다. 박 양은 지난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자유학기를 보냈다. 한 학기 동안 배운 가야금 실력을 뽐내며 친구들과 공연도 선보이자 학부모들은 큰 박수와 응원을 보냈다.

지난 3월 10일 부산에서 열린 ‘2016 자유학기제 맘에 쏘 학부모 토크콘서트’ 현장. 총 20회에 걸쳐 전국에서 진행되는 토크콘서트의 두 번째 장소다.

이 부총리는 자신의 경험을 빌어 자유학기가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중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만나 자유학기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다.

꿈을 꿀 기회가 된 자유학기

“부산 서면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근처에 자동차 정비소가 있었어요. 정비하는 사람이 작업복을 입고 스파너 등의 공구를 든 모습이 멋있어 보여 기술자를 꿈꿨지요. 그때 소중한 꿈이 커져 공학기술자가 되었고, 지금은 교육부장관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날 이 부총리와 함께 토크콘서트 패널로 참석한 조우성 명지중 교사와 이혜선 화명중 학부모는 시범운영으로 참여했던 자유학기 경험을 털어놨다.

조 교사는 “수업은 모둠형식으로 변하고, 학생들은 서로 토론을 통해 스스로 답을 도출하게 됐다. 아이들이 수업을

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험 부담을 없애고,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자유학기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교실 수업 또한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 중심 수업으로 변화를 꾀하며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고 있는 시범운영 결과도 밝혔다.

이날 이 부총리와 함께 토크콘서트 패널로 참석한 조우성 명지중 교사와 이혜선 화명중 학부모는 시범운영으로 참여했던 자유학기 경험을 털어놨다. 조 교사는 “수업은 모둠형식으로 변하고, 학생들은 서로 토론을 통해 스스로 답을 도출하게 됐다. 아이들이 수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주제 활동은 사전 희망조사를 통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다. 원하는 걸 찾아가 배우니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가 하고 싶었던 수업은 다 해봤다.’며 교사들도 힘들지만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로서 느낀 바도 남달랐다. 시험을 치지 않으니 아이들이 학업에 소홀하고 성적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은 기우였다. 이혜선 학부모는 “정말 불안하고 어떨 때는 답답했다. 하지만 아이가 꿈이 생기고 난 뒤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 직업인의 날, 직업탐방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꿈·끼 발표회를 통해 더욱 심화·몰두했다.”며 “협력학습이 많아지면서 친구들과도 더욱 돈독해졌다. 이제는 자기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진로를 고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교사, 학부모 모두 입을 모아 강조한 건 아이들에게 ‘꿈을 꿀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이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꿈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탐색할 시간적 여유와 진로탐색 체험이 이뤄졌다는 것. 교사들의 멘토로 불리는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도 패널로 참석해 “자유학기제를 대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문제는 주입식 교육이다. 아이



학기 후 학업중단자가 사라졌다. 수학우수자가 13%에서 33%로 늘어나고 교우관계도 개선되며 학교폭력도 줄었다. 패널로 참여한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센터장은 “아일랜드는 전환학년제를 통해 아이들이 연간 다양한 활동을 한다. 70년대 몇

몇 학교에서 시작했지만, 전환학년제가 오히려 학력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지금은 95% 이상의 학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건 진로탐방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와 체험처다.

현재 교육부는 자유학기 동안 10명 단위로 한 학기 2회 4~6시간의 집중 체험을 권장하고 있는데, 전국 4만 5천 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려면 9만 여개 체험처가 필요한 셈이다. 김승보 센터장은 이에 대해 “현재 12만여 개 체험처가 개발돼 있고, 이러한 체험이 실질적인 학습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230 개 시·군·구별로 진로체험센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 주최 ‘2016 자유학기제 맘에 쏘 학부모 토크콘서트’는 2월 29일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전국에서 진행된다. 부산에서는 MC 서경석 씨의 유쾌한 진행 아래 스마트퀴즈쇼 등 패널 간 토론이 90분간 진행됐다. ☎



공교육 개혁의 선두주자

학교정책관



자유학기제, 생활기록부, 일반고등학교, 외고·국제고, 자율형사립고, 교원 양성 및 연수….

학생·학부모들이 가장 가깝고 민감하게 느끼는 핵심 교육정책을 다루는 곳이 바로 교육부의 '학교정책관'입니다.

학교정책관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변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비롯해 학교 입학에서부터 졸업, 학부모, 교원 분야까지 학교교육 전반에 관한 정책을 가장 포괄적으로 생산·추진합니다. 이를 그대로 '학교'에 대한 '정책'을 다루는 곳이니 교육부의 심장 부서라 할 만지요.

최근 전국 미취학 학생들의 현황 파악에 나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일도 학교정책관에서 앞장 선 결과입니다.

또한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를 줄여나려는 노력도 학교정책관의 역할이지요. 이와 같이 학교정책관에서 하는 일은 학교 현장과 정책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장을 잘 이해하고 현장과 원활히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교사 출신



의 전문직들의 활약이 특히 두드러지는 부서이기도 하죠.

강한 공교육 위한 교육정책 추진

학교정책관은 학교정책과, 공교육진흥과, 학부모지원팀, 교원정책과, 교원복지연수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정책과는 초·중등 교육제도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미취학 학생에 대한 촘촘한 관리를 위해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례들을 발견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고등학교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외고·국제고, 기숙형고등학교, 자율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관한 사항,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교육국제화특구 정책

에 관한 사항을 추진합니다.

공교육진흥과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교육정상화 정책을 수립·시행합니다.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3년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 전체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 중입니다. 특히, 최근 알파고가 던진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자유학기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데요, 그 동안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학부모의 공교에 대한 신뢰도 및 교사의 자긍심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전면 시행 결과에 앞으로 더욱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지원과 교원정책 총괄

학부모지원팀은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 학교 참여를 지원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교원의 주체인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등 타 부처와 협력하여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사업과 사·공간의 제약 없는 학부모 온라인 교육과정도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를 통해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지요.



학교정책관에서는 우리 사회에 관심이 집중됐던 자유학기제를 비롯해 학교 입학에서부터 졸업, 학부모, 교원 분야까지 학교교육 전반에 관한 정책을 가장 포괄적으로 생산·추진합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하여 전국 335개 학교를 선정하여 단위학교 학부모 회장 2백만 원씩의 지원금을 교부하여 학교 운영 모니터링, 교육기부 활성화, 학교-가족 간 소통강화 등 관련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등 6대 교육 개혁 프로그램 성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2016 행복교육박람회(10.20.~22.)를 추진하여 관리자들이 행복교육 활동, 교육개혁 성과를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원정책과는 초·중등 교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합니다.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장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였고 교권침해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며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과 호흡하는 학교정책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다시는 어린 생명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꽃 피운다

초등학생들이 고래처럼 물살을 가른다. 하지만 영법을 익히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구명동의 입고 수영하기, 구명보트로 인명 구조하기 등 생존수영에 무게를 실었다.

이곳은 울산 범서초등학교(교장 이성경). 전교생 모두가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학년 별 수업시수 16차시를 확보해 수상안전교육을 받았다. 학교는 체육전담교사 외에 수영보조 강사를 2명 더 채용하고 울주군 체육회로부터 교육기부도 받았다. 전문 교사들이 철저하고 빈틈없이 수상안전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서다. 학생들의 목표의식을 높이기 위해 수영 급수제(8등급)도 실시했다.

안전교육 강화에 모두가 한마음

학교 현장의 안전교육이 확 달라지고 있다. 꽃 같은 생명을 떠나보내야 했던 우리사회의 아픔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엿보인다. 교

육부, 시·도교육청,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온 국민이 '안전교육' 내실화에 하나 되는 분위기다.

앞서 살펴본 울산 범서초등학교의 경우도 학교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뿐 아니라 수영대회와 수중어울림 한마당 등을 개최해 안전의식을 지역사회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 행사에서 재학생 참가희망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인별, 반별 수영대회를 여는 한편, 구명보트레이스, 에



어매트 구조선 타기, 뗏목타기 등을 펼쳤다. 또한 획일적인 이론교육과 실내 수영장에서만 실시하던 수상안전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여름 '태화강 수상안전캠프'도 열었다. 캠프에 (사)울산특전재난구조대와 해양소년단 울산연맹,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해 강사와 보트, 부표, 구명동의 등을 지원했다. 학생들은 인공호흡법, 구명보트 사용법 및 탈출법, 구명환 사용법,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 인명구조법, 물에 떠 있기 등을 훈련 받았다. 이밖에도 지난해 10월 울산울주경찰서, 울산남부소방서, 대한인명구조협회 울산지회 등 안전 유관 기관과 협력해 '범서SAFE 데이'를 마련, 20개 부스에서 다양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

들에 박힌 방식 벗어나 흥미·효과 동시 추구

경기도 퇴계원초등학교(교장 구자선)는 교내 및 교외로 안전교육을 이원화하여 추진했다. '꽃보다 안전'이라는 프로그램을 고안해 다양한 하위 활동들을 운영함으로써 흥미와 효과를 동시에 높였다. '불후의 안전송(안전수칙 노래 부르기)', '심장이 돌아왔다(심폐소생술)', '안전체험레이스(외부 안전체험행사 참가)', '무한안전(주변 안전시설 찾기)', '안전의 법칙(안전수칙 암송)', '안전을 부탁해(안전자료 전시)'

꽃보다 안전

퇴계원초



등과 같이 활동마다 인기 예능프로그램의 이름과 로고 디자인을 패러디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 점이 주목된다. 또한 학생들에게 포인트 통장을 지급해 활동에 참여하거나 미션을 수행하면 개별 포인트를 부여하고 행사가 끝난 후 합계점수가 높은 학생들에게 시상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였다.

경기도 안산고잔고등학교(교장 박해오)는 안전교육에 인성교육과 체육교육을 접목해 '융합형 연극 활용 체육수업'을 선보였다. 예컨대 '생명을 살리는 참 소중한 체육수업'이라는 주제로 응급상황대비 요령을 생명존중 인성강화 덕목과 결합해 수업하기도 했다.

단계별 안전교육 시간, 횟수, 방법 등 고시

학교현장에서 불고 있는 안전교육의 새바람이 앞으로 더욱 체계화·내실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5일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학교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확정·발표한다고 밝혔다.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에는 학생 발달단계 별로 안전교육 시간, 횟수, 내용 및 방법 등이 담겨있다.

특히 이번 고시안은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이 실시되도록 지난해 51개 안전교육 연구학교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68명의 유·초·중·고 교원모니터링단의 구체적인 검토와 정책연구를 종합적으로 거쳐 마련된 것이다. 학생들은 고시안에 따라 생활/교통/폭력 및 신변/약물 및 사

이비 중독/재난/직업/응급처치 등 7개 영역에 걸쳐 학년 당 총51차시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3월 신학기를 맞아 세 월호 사고 이후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안전에 대한 인식 및 의지를 측정할 수 있는 '안전예산'을 분석해 발표했다. 최근 4년간(13~16년) 시·도교육청의 '안전예산'을 분석한 결과, 총 예산액 대비 '13년 3,773억 원(0.66%), '14년 4,510억 원(0.75%), '15년 5,205억 원(0.84%), '16년 5,982억 원(1.07%)으로 안전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 시간 및 횟수

구분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총계(차시)
교육시간	유치원	13	10	8	10	6	2	51
	초등학교	12	11	8	10	6	2	51
	중학교	10	10	10	10	6	3	51
	고등학교	10	10	10	10	6	3	51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 1차시의 수업 시간은 교육과정(초 40분, 중 45분, 고 50분)을 따르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이론 방법 외에 실습과 현장학습, 역할극 등의 체험중심의 교육 방법을 적용한다.

제13회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학교 수기 ● 세종 아름중학교

‘동행·어울림·희망’으로 꿈과 끼를 가꾸는 행복한 아름교육 이야기



글 정선화 교육과정부장교사

“큰 꿈이 위대한 사람을 만듭니다. Great hopes make great men.” 아름 중학교 교정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하게 되는 아름교육 슬로건입니다.

큰 꿈을 가지고 더불어 배움을 즐기며 미래의 행복한 삶을 가꾸어 가는 아름인들에게 개교 2년차에 일궈낸 전국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학교의 성과는 아름인들의 자존감과 행복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개교 2년차의 신설학교, 1,0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 67%의 신규 및 저경력 교사와 70%의 전입학생.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교육가족들, 개발

진행 중인 신도시 소재, 이질적인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하고도 큰 바람과 기대 등의 학교 환경 여건 속에서 행복한 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공감, 그리고 아름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방향 정립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학교 실태 및

교육공동체의 요구 분석,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국가 교육정책 방향과 목표 등의 분석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편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관료적 통제와 조직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부적합한 운영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교육공동체와 함께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와의 합의와 집단지성 발휘에 의해 학교 교육비 전 및 교육목표, 교육목표 구현 중점 과제, 교육과정 운영 전략, 특색프로그램 등을 설정·공유하였으며, 이는 아름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내실 있는 즐거운 실천과 신뢰를 이끌어내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직 변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스마트 아름인, 바른 인성과 감성을 갖춘 고품격 아름인, 꿈과 재능을 키워가는 행복한 아름인, 탄탄한 실력을 갖춘 으뜸 아름인’의 교육목표 실현을 추구하는 교육

과정상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 운영과 병행하여 이를 위한 학교 안팎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관료적 통제와 조직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부적합한 운영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교육공동체와 함께하였습니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생 및 배움 중심의 학교 조직문화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교과 및 교육과정 중심 업무 조직 편성과 학년부의 자율적 권한 확대, 학년목표관리제의 운영, 학생회, 학급회, 학생자치법정의 활성화를 꾀하였으며, 경직된 업무



지역사회 자원 활용 체험활동



학교라는 공간과 그 안에서의 교육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자유롭고 편안하며 존중받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내적 공간과 외적 공간, 공동체 공간을 조화롭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조성하여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한껏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전달 및 지시 중심의 회의 축소, 교직원 행정 업무 합리화 추진 등을 통하여 수평적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문화를 지향하였습니다. 또한 인성교육 및 핵심성취기준, 역량 및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관련 교직원 워크숍과 창의수업연구회, 교실수업혁신동아리, 교사 독서동아리,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학교혁신연구회, SW교육연구회 등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의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이것은 대규모 학교에서 교직원이 소통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학생의 꿈·끼 발현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과 자기주도 학습,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학생 친화적 학교 환경의 구성도 중요하였습니다. 규율 중심의 공간이 아닌 학생의 삶 중심의

따뜻한 집 같은 생활공간으로서 학교라는 공간과 그 안에서의 교육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자유롭고 편안

하며 존중받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내적 공간과 외적 공간, 공동체 공간을 조화롭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조성하여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한껏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정형적인 교실이 아닌 교실 밖 또 다른 형태의 교실로 아름스퀘어, 아름갤러리, 아름씽크웰, 아름짐플렉스, 야외모둠학습 공간 등 학생 생활거점공간으로서의 기능과 학습 기능이 결합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창의적인 공간에 프로젝트 발표학습, 게임학습, 소집단 협동학습, 스포츠 활동, 자유학기 선택프로그램 활동 등 체험이 있는 즐거운 수업과 다양한 꿈·끼 발표의 학생 중심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담았습니다.

교과 간 융합 등 교실 수업 혁신에 주력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학교 내 시설과 자원, 개발 진행 중인 지역사회의 여건상 다양한 체험자원의 미흡한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지역사



인성교육 중심 수업
회 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지역 커뮤니티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공공기관, 정부기관, 문화예술기관 등과의 교육기부 및 협업체계를 통하여 학교로 찾아드는 또는 학교 밖으로 나가는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아름교육의 서포터즈를 형성하였습니다.

특히 본교 사회과 교사와 한국개발원 학교경제팀과의 팀티칭으로 운영된 교과 연계 프로젝트기반학습 적용 경제교육 ‘아름푸드코트를 부탁해’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적 자원의 활용으로 학생들의 교실 수업에 대한 신선한 즐거움과 함께 협동적 문제해결력 향상의 기쁨을 배가한 매력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었습니다.

“지금은 수학수업 시간인데요, 수학



원리를 이용한 윷놀이를 통해 정다면체와 확률의 수학적 원리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수업입니다. 먼저 역사 선생님이 코티칭으로 윷놀이의 유래에 대해서 가르치며 흥미를 돋우고, 제가 이어서 윷놀이에 담긴 수학적 원리를 탐구하게 하고 윷놀이 게임을 통해 이를 이해하게 하는...”, “국어랑 소프트웨어는 다른 분야잖아요. 근데 이것을 같이 배워서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머리에 잘 들어와요”, “수학을 많이 싫어했는데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적용하며 서로 더불어 성장하는 교사 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 교과 SW융합 수업 운영을 위하여 SW 프로그램 연수와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SW융합 교수·학습 설계에 서로 힘을 보탰습니다. 이 과정은 학생에 대한 이해와 교실수업 개선에 대한 실천 의지, 당위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교사 간 토론과 협업 중심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켰던 것 또한 바로 교실 수업의 혁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 운영의 여러 영역에서 거둔 성과 중 가장 유의미한 자부심과 교사로서의 재산을 축적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학생 참여 및 협력 중심의 배움이 살아있는 수업과 학생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 방법 개선이었습니다. 교과 간 융합수업 및 배움 중심 수업 실천을 위하여 선생님들은 지속적으로 만나 교과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과 통합 템플릿을 작성하였으며, 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적용하며 서로 더불어 성장하는 교사 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 교과 SW융합 수업 운영을 위하여 SW 프로그램 연수와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SW융합 교수·학습 설계에 서로 힘을 보탰습니다. 이 과정은 학생에 대한 이해와 교실수업 개선에 대한 실천 의지, 당위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교사 간 토론과 협업 중심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켰던 것 또한 바로 교실 수업의 혁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 운영의 여러 영역에서 거둔 성과 중 가장 유의미한 자부심과 교사로서의 재산을 축적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수학과 역사 코티칭 수업

학생 자율동아리로 꿈 키우기

다양하고 이질적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화려하고 수준 높은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학생 친화적 체험활동들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학생들의 선택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학기 활동, 인성과 감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인문소양 교육 프로그램, 학교폭력 Zero를 다지는 평화인권 교육 프로그램, 학부모와 동행하는 토요 프로그램, 국제교류 프로젝트 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와 배움이 살아있는 풍성한 활동 모습들이 학기 내내 모바일 메신저상의 아름방을 통하여 전 교육가족



평화 감수성 동아리 활동



융합수업

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꿈을 디자인하고 끼를 키우는 체험활동에 있어 학생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의 초석이 되었던 것은 학생들 스스로의 조직과 활동에 의한 28개의 자율동아리였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아름 아이들은 자신들의 꿈을 스스로 학생 자율동아리에서 서로 북돋우며 키워갈 수 있었고, 또한 자율동아리 단위의 사제동행 봉사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체험활동들은 안전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과정은 학생들 스스로의 설계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그 끝은 활동 결과 공유 및 만족도 조사와 피드백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아름중은 이제 겨우 출발한 신생아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와 행복한 학교교육 모델로서의 역할 기대와 함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다양하고 행복한 체험이 있는 교육과정,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발돋움하는 아름다운 학생을 기르는 교육과정, 꿈과 재능이 배움으로 실현되는 아름다운 학교로 성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더욱 충실하고자 합니다.



께 아름인의 전통을 형성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요구가 절실하였습니다. 이에 아름인들이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사회와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며, 계속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바람직하게 적응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키우고, 학생 스스로 ‘꿈’에 대한 설계와 꿈 실현을 북돋우는

자율동아리 활동



‘끼’를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천일성장 꿈·끼 스토리, 아름드리 프로젝트’라는 특색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아름중에서의 3년간의 중 학생활을 통하여 ‘아름드리 프로젝트’로 성장하며 인성, 창의성, 협동적 지성의 세 역량을 키워 아름드리나무처럼 풍요로운 미래의 삶의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한아름 삶의 둘레를 넓혀가는 아



름인을 길러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에 있어서 아름드리 프로젝트에 대한 전년도 평가와 교사, 학생들의 요구를 새로이 수용하여 아름 삶 역량 성취 인증 항목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수정 보완하여 아름 교육과정 운영의 장기적인 특색 프로그램으로 전통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미래를 꿈꾼다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미래를 꿈꿉니다. 학교 교육으로부터 행복한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며 함께 공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 교육 가족을 위하여,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서의 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책무성을 더하여, ‘교육 공동체가 공감하는 다양하고 행복한 체험이 있는 교육과정,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발돋움하는 아름다운 학생을 기르는 교육과정, 꿈과 재능이 배움으로 실현되는 아름다운 학교로 성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더욱 충실하고자 합니다. ②



나는 특성화고 학생입니다.

유능한 직업인이
되는 것이 꿈이죠.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마치면
시험 없이 연계된 전문대학에 진학합니다.



고교 3년과 전문대학 2년을 통합한
유니테크 과정 덕분에
졸업과 동시에 취업도 보장돼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유능한 직업인!

유니테크 교육과정으로
꿈에 한발 더 가까워집니다.

고교-전문대 5년 맞춤형 직업교육과정 '유니테크'

디지털분야 특성화고등학교인 인천 재능고등학교(교장 신승찬)는 반도체유니테크과 학생 30명을 선발해 전문대학인 인천 재능대학과 정규교육과정을 통합해 운영합니다. 즉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마치면 전문대학 2년 과정으로 자동 연결된다는 뜻이지요. 시험도 없이 전문대학에 바로 진학할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라고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취업까지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천 재능고등학교 반도체유니테크과 학생의 경우, 3년간 고교에서 실무능력을 쌓은 후 무시험으로 인천재능대학에 입학, 졸업 후에는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주)유니셈으로 취업이 보장돼 있습니다. 일정한 급여를 받고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반도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수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취업보장형 고

교·전문대 통합교육(Uni-Tech 유니테크)이 올해 본격 시작됐습니다. 유니테크는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그리고 취업을 보장하는 기업이 연계돼 하나의 사업단을 이루고,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5년간의 통합교육과정을 함께 구성·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유니테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전문대학에 무시험 전형으로 입학하게 되며 졸업 후 계속해서 채용 약정기업에 근무하는 혜택을 얻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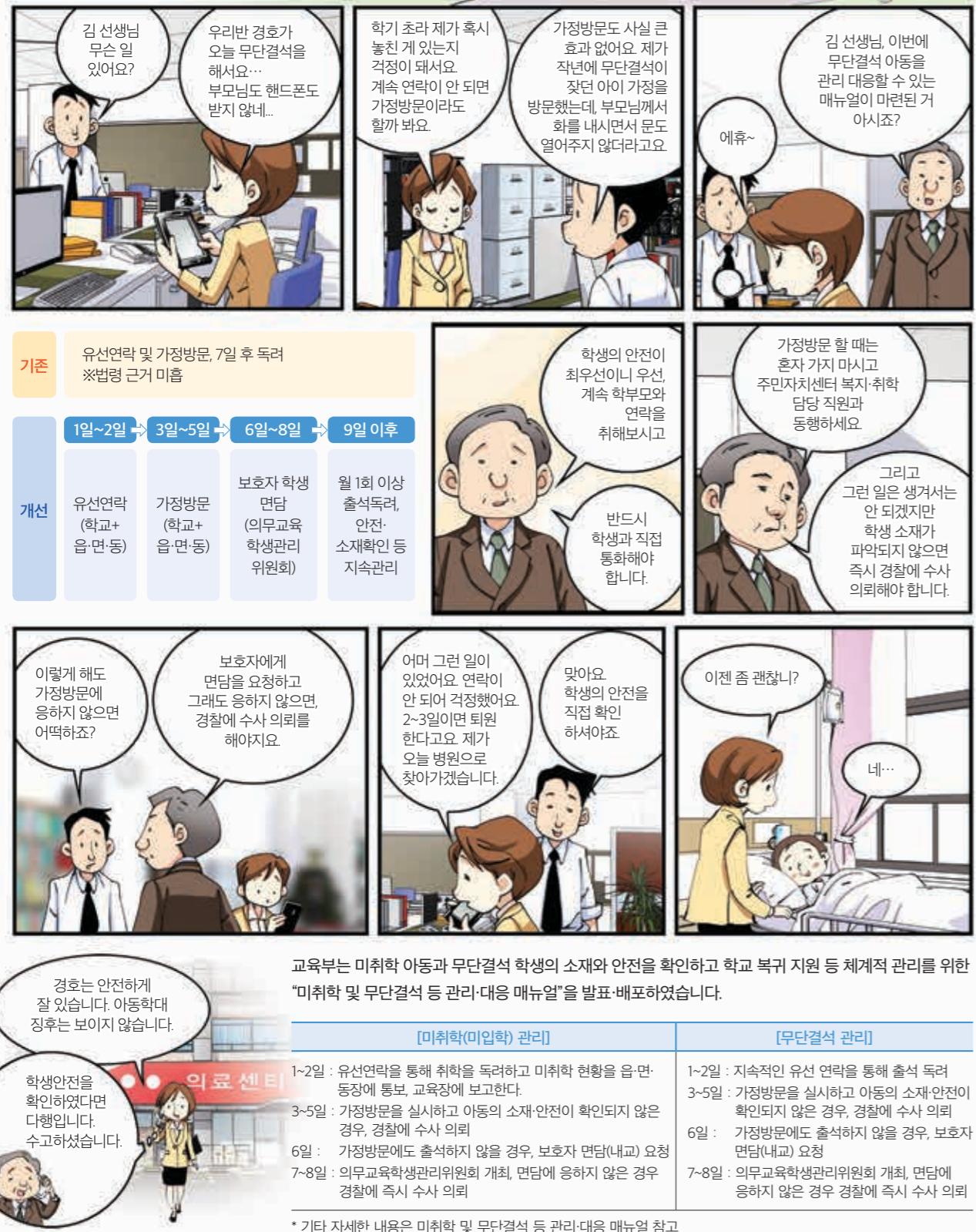
인재양성 분야에 따라 사업단도 다양합니다. 경남공고-동의 과학대-(주)성우하이텍 등과 손잡은 사업단에서는 자동차 부품 설계 및 생산 인력을 양성합니다. 경기기계공고-신성대학교-현대제철(주)과 연계된 사업단은 글로벌 철강 산업을 주도하는 현장 전문 인력을 배출하지요. 뿐만 아닙니다. 유한공고-유한대학 교-(주)유한양행, (주)대웅제약 등과 함께하는 사업단에서는 스

마트공장 생산자동화설비 운영·관리를 위한 엔지니어를 키워냅니다. 이러한 사업단은 사업운영비 최대 10억 원, 시설·기자재비 최대 10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습니다.

유니테크는 취업이 보장된 기업에서 교육과정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학생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실용적인 수업을 들으며, 전문대학은 신입생을 미리 확보하고, 기업은 바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숙련기술인을 채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직업 맞춤형 교육을 고등학교부터 5년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교육 경로가 마련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지요. '15년 기반기술 11교, 정보통신 3교, 유망서비스 2교 등 총 16교가 사업단으로 선정됐는데요. 교육부는 올해 사업단별 취업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신규 기업 발굴 상황을 점검하여 통합교육과정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 관리대응 매뉴얼



교육논단

수행평가의 교육적 의미와 동향



교육평가의 종류와 특징

수행평가의 개념과 효과

올바른 수행평가 시행을 위한 제언

교육평가의 종류와 특징



전통적으로 시험이라는 형식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주된 방법이었다. 이 방법은 오랫동안 학생들의 성취도를 효율적으로 측정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다. 1920~30년대부터 시험은 학교 현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효과적으로 측정해 왔고 이러한 객관적인 결과를 토대로 중요한 교육적 의사결정이 내려졌다. 대중교육이 시작된 이후로 학교 현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고 그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성적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두시험과 같은 비효율적인 방법 대신에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의 지필식 시험을 활용했다. 지필식 시험은 정보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 교육평가 분야에서 효과적인 유일한 방법이었고 문제은행이나 컴퓨터화 적응검사와 같이 컴퓨터나 인터넷 기반의 시험이 가능해진 현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다.

대량의 지식을 측정하는 지필식 시험

지필식 시험이 효율적이고 객관적

일 수 있었던 것은 대량의 지식을 측정 할 수 있고 공정한 측정 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한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묻는 시험을 만드는 것은 쉽다. 선다형, 진위형, 연결형 문항 유형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유형은 많은 양의 지식을 한 번에 측정할 수 있고 정답 여부에 따라 맞고 틀리고 기계적으로 채점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며 객관적이기 때문에 지필식 시험 또는 지필평가의 전형적인 유형으로서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다. 이런 유형의 평가가 지필평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객관식 평가, 지필평가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등의 양적인 개성을 측정할 수는 없다. 사고의 과정을 고정된 선택지에서 고르는 형태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식의 활용 능력, 사고력, 사고 과정 등을 측정하려면 피험자가 응답을 만들어 내는 형태가 적합하다. 이러한 유형을 서답형 또는 구성형 문항이라 부른다. 여기에는 피험자가 만들어 내야 하는 응답을 제한하는 조건에 따라 단

- **선택형 문항** - 지필식 시험(선다형, 진위형, 연결형 문항)
- **구성형 문항** - 서답형 시험(단답형, 팔호형, 완성, 논술형의 문항유형)
- **수행평가** - 수행과제, 채점기준을 갖고 과제수행 → 문제해결과정 → 지식활용과정 평가

하게 행동주의 학습이론에 근거한 평가방식이다.

이 방식은 대량의 지식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엔 유리하지만 지식을 다루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지식의 활용 능력이나 사고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세워 절차적인 사고를 하는 과정 등 지식을 다루는 능력을 측정할 수는 없다. 사고의 과정을 고정된 선택지에서 고르는 형태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식의 활용 능력, 사고력, 사고 과정 등을 측정하려면 피험자가 응답을 만들어 내는 형태가 적합하다. 이러한 유형을 서답형 또는 구성형 문항이라 부른다. 여기에는 피험자가 만들어 내야 하는 응답을 제한하는 조건에 따라 단

답형, 팔호형, 완성, 논술형의 문항 유형이 포함된다. 하나의 정답 보다는 가능한 정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며 문항의 성격에 따라 정답이 없거나 정답 보다는 정답으로 이끄는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구성형 문항을 활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맞고 틀리고의 단순 기계적인 채점이 어렵기 때문에 평가자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응답조건을 제한하지 않는 확장된 논술형 문항은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평가할 때 공정성의 문제가 늘 제기된다. 평가자의 전문성과 주관성의 명확하지 않는 경계로 인해 피험자에게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항 유형이나 채점 방식을 생각해 보면 수행평가는 구성형 문항 유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혹자는 수행평가를 구성형 문항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수행평가라 하지 말고 수행형 문항이라 해야 맞다. 실제로 수행형 문항을 구성형 문항 유형의 하나로 분류하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학문적으로 정통한 분류

로 볼 순 없다. 그렇다면 구성형 문항과 수행평가의 차이는 무엇일까.

구성형 문항과 수행평가의 차이

피험자에게 응답을 만들어내도록 요구하는 형태라는 점에선 구성형 문항과 수행평가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수행평가는 문항 대신 과제(task)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정확하게 수행평가(performance assessment)는 과제(task)와 채점기준(rubrics)으로 구성된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과정중심의 평가라 한다. 교수학습과정에 투입되는 형성평가의 개념으로 수행평가를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정중심의 평가라는 의미는 수행과제가 지식을 활용하여 전략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드러내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그 과정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과정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행평가를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학생의 성취도는 알고 모르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을 다룰 줄 알고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구성형 문항 중에서도 확장된 논술형 문항은 수행과제로 활용되기도 한다. 요구하는 능력이 복합적인 지식 활용 능력이나 사고력을 다루고 그 과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면 수행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제는, 과제에서 요구하는 수행능력을 그대로 측정할 수 있는 모정의 기준(rubrics)과 짝을 이룰 때 피험자의 수행능력을 그대로 평가할 수 있다. 논술형 문항을 수행과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만 평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수행평가라 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을 가지고 맞고 틀리고의 기계적인 채점이 아닌 사고의 과정, 활용의 과정을 관찰, 검토해서 평가한다. 이런 점에서 수행평가는 선택형 중심의 지필평가와 대비되는 개념이며 수행평가의 확대가 교육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과제와 채점기준을 정교하게 만들고 학생들의 수행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 요구되며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준비가 필요하다. ☐

수행평가의 개념과 효과



우리는 평가라고 하면 '객관성', '정확성', '신뢰성'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 교과 성적이 누가 더 높고, 시험 결과에 의해 누가 더 좋은 대학을 갈 것인지를 염려하며 학생들을 비교하기에 적절한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평가의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평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측정이라는 개념과 평가를 혼동하면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평가라고 하면 영어로 'evaluation'이라고 하여 '가치(value)'를 중시하고 평가되는 대상이 얼마나 특정한 면에서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평가라고 하면 시험을 보고 점수를 산출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시험을 보고 점수를 내는 것은 측정(measurement)의 개념이다. 측정은 어떠한 특성이든지 간에 수량화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의 키나 체중은 물론이고, 국어능력이나 학습동기에서 도덕성에 이르기까지 숫자로 표시하고자 하는 것이 측정인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측정의 개념인 시험에만 의존하게 된 것은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고 비교하는데 있어 점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교육현장에서 평가는 점수를 산출하고 학생들을 비교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실제 평가는 학생들을 비교하기 보다는 이해하고 교육발달을 위해 돋고자 하는 방법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즉, 대학입시 내신자료를 위해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잘 교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가의

형태가 지필식 위주의 시험보다는 학생들의 학습발달을 이해하고 교육적으로 발달해 나갈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과제해결을 위한 사고, 행동과정을 평가

수행평가(performance assessment)는 기본적으로 선택지에 의해 구조화된 선택형 검사와 달리 학생들의 자유로운 반응을 요구하는 평가 유형이다. 획일적인 하나의 정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형 검사와 차별된다는 점이 수행평가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암기하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의 검사들은 점수를 산출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지향적인 평가의 역할만을 수행한 반면에, 수행평가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과정까지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과정평가라고 한다. 더 나아가 평가를 통해서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의 일부가 된다는 점에서도 과정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행평가의 개념이 자유반응형의 평가유형이라는 인식을 넘어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고 의사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OECD에서는 21세기 인재역량으로 '협력(collaboration)'과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가장 주요한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협력적 문제해결역량(CPS:Collaborative Problem Solving)을 평가

할 수 있는 형태로 수행평가도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행평가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선택형 검사는 단편적인 지식 암기에 유용했던 반면에 수행평가는 고차적 사고능력(문제해결능력, 사고력 등)의 수준을 판단하고 평가를 통해 학습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수행평가의 효과로서 더욱 중요한 것은 21세기 인재가 필요로 하는 협력적 문제해결역량을 기르는데 적합하다는 것이다. 수행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학생들을 줄 세워 비교하기보다는 정성적인 판단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행평가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협력하여 수행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소통하는 인성도 함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협력하여 평가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중에 친구들의 다양한 사고와 지식을 경험하게 되면서 창의력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수행평가의 효과이다.

셋째, 수행평가는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학습을 돋는다는 점에서 교수-학습을 개선해가는 데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평가가 점수를 매기기 위한 선별관에 기반한 결과지향적 활동이 아니라 학생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활동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협력적 문제해결역량 기르는데 적합한 수행평가

수행평가의 장점들을 생각해 볼 때, 더 이상 시험과 수행평가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최근 교육평가 학자인 Shepard(2000)에 따르면 바람직한 평가는 첫째, 학생의 고

수행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학생들을 줄 세워 비교하기보다는 정성적인 판단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행평가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차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고 둘째, 평가는 학습결과뿐만 아니라 학습과정을 다루어야 하며 셋째, 수업과 통합된 계속적 평가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 학생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형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섯째, 학생은 자신의 수행을 평가하는데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Nicole& Mcfarlane-Dick(2006)도 좋은 평가는 평가과정에서 학생이 자기성찰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하고, 긍정적 자아존중과 동기유발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수행평가는 '좋은' 평가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평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❸

올바른 수행평가 시행을 위한 제언



수행평가가 우리나라 학교현장에 도입된 지도 20여 년이 된다. 1997년부터 수행평가 방식이 학교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1999년에 들어서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과성적 산출시 수행평가를 포함하도록 정하였다. 20여 년이 지나면서 학생들에게 부담이기만 하던 수행평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교사들도 수행평가 과제를 작성하는데 많은 경험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행평가 과제들을 살펴볼 때, 아직도 무늬만 수행평가인 경우가 많다. 수행평가 과제는 학생들이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는데,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에 그치고 있을 때가 많다. 채점에 있어서는 수행평가의 문제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다. 수행평가에서는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지다보니 학생들로부터 채점의 객관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빈번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채점의 객관성 문제는 입시를 위한 내신자료로 활용될 때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에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기본점수의 비중을 높여서 실제로는 수행평가의 비중이 줄어들게 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수행평가가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수행평가의 본질에 충실할 것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지필식 선택형 검사에만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가 잘 안다. 그렇다면 수행평가가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수행평가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수행평가 과제는 학생의 고차적 사고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수행평가 과제는 자유반응 형태이면 된다는 최소 기준에 맞추어 지식 암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답형이나 서술형 문제 유형을 출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수행평가를 도입하는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면, 수행평가에 대한 필요성도 낮아질 것이고, 이는 수행평가가 교육현장에서 정착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둘째, 협력형 수행평가 과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최근 OECD가 미래지향적인 인재역량으로 협력형 문제해결역량(collaborative problem solving)을 강조하면서, 수행평가의 형태도 협력형으로 출제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협력형 수행평가는 학생들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창의력까지 길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사가 협력형 수행평가 과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연수받을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 및 기자재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PISA의 협력형 문제해결역량을 평가하는 과제는 컴퓨터기반으로 출제되기도 하는데, 동료들과의 의사소통과 협력의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채점의 신뢰성 확보를…

셋째, 채점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수행평가가 무늬

만 수행평가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채점의 신뢰성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교에서 시행되는 평가 결과는 상급학교 내신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데, 대학 입시를 대비하고 있는 고교생의 경우에는 채점결과가 매우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수행평가의 정착을 위해서는 교사 채점의 신뢰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를 위한 연수는 수행평가 과제 작성뿐만 아니라 채점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평가결과 기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수행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과 함께 학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수행평가 과제를 통해 학생의 학습 과정 및 강약점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학생의 태도와 같은 정성적 평가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학생의 학습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생활기록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재하기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학생과 교사 입장에서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만큼 평가결과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수행평가는 교사가 좋은 과제를 출제하기도 어렵지만, 정성적 평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채점 업무가 과다해질 수 있다. 이러한 업무 부담은 교사로 하여금 좋은 수행평가 과제를 출제하기보다는 채점하기 용이한 과제를 출제하도록 유인하게 된다. 교사가 좋은 수행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지녔

수행평가의 정착을 위해서는 교사 채점의 신뢰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를 위한 연수는 수행평가 과제 작성뿐만 아니라 채점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고 할지라도 많은 업무를 부담하게 되면 수행평가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행평가의 확대와 개선을 위해서 교사의 평가와 관련된 업무 증가를 대비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행평가가 목표로 하는 교육적 성과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선결 과제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교사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의지 및 노력과 함께 수행평가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정부 정책과 지원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❸

이준식 부총리, 자기주도적 학습 현장을 가다

퇴계원고, 맞춤형 학습 플래너로 일반고 역량 업그레이드

여기저기서 생명의 기운이 터져 오르는 새봄, 등굣길 학생들의 발걸음도 싱그럽다.

교문에 서서 학생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교사들의 표정에서나,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인사로 화답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서 이 학교의 무한 에너지가 뿜어 나온다. 이곳은 일반고의 위기가 거론되는 교육계 안팎의 분위기 속에서 퇴계원고등학교가 이와 같이 성큼 도약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박토 위에 피어난 꽃
퇴계원고등학교는 농촌소재 학교로 경제적 상황과 문화적 환경이 취약한 편이다. 하지만 모교 출신 학교장을 비롯해 35%가 초빙교사로 이루어진 교직원들은 여전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과정 내실화와 인성교육 강화에 힘을 쏟았다. 2012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2014 인성교육 우수 모델학교 최우수상 수상, 2016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우수 프로그램 운영교 표창 등 학교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움직임은 이와 같이 꽂목할 성과로 나타났다. 척박한 땅에서 피어난 꽃송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구어낸 결과여서 더욱 눈부시다.

“문화·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편이다 보니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학교의 교육역량을 더욱 강화해 교육가족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중심으로 우뚝 서야 하는 것은 교육자의 사명이자 과제이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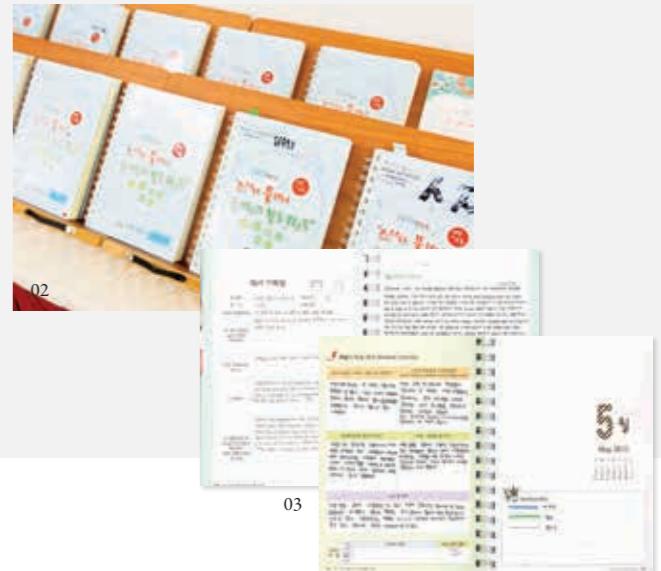
합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교원 수 확보, 일선 교원에 대한 교육청 및 교육부의 지원과 신뢰 분위기 형성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정렬 교장의 말이다.

일반고의 위기가 거론되는 교육계 안팎의 분위기 속에서 퇴계원고등학교가 이와 같이 성큼 도약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핵심은 ‘맞춤형 학습 플래너’와 ‘스토리가 있는 동아리 활동’에 있다. 퇴계원고는 신입생부터 3년간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플래너를 활용해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반성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이 커지면서 교실수업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 가능해진 것. 또한 3시간 블록타임제를 활용해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동아리 진로체험의 날 운영, 1박2일 동아리 테마기행 등 총64개에 이르는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으로 학교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준식 부총리 학교 찾아 현장과 대화

자기주도적 학습 성과에 주목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3월 24일 퇴계원고등학교를 직접 찾아 일반고의 역량 강화를 이뤄낸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이러한 성과



01 자기주도적 학습 성과에 주목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24일 퇴계원고등학교를 직접 찾아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

02 03 퇴계원고는 학생들이 3년간 맞춤형 학습 플래너를 활용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언에 귀 기울였다.

“최근 알파고(인공지능) 대 이세돌의 대결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큰 변화를 실감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시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창의성·인간성·인문학적 사고력 등을 갖춘 인재가 필요합니다. 학습 패러다임은 자기주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미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워가는 퇴계원고등학교의 사례가 더욱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식 부총리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맞춤형 학습 플래너’ 활용 사례 등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민하연(3학년), 문형철(3학년), 장유진(2학년) 학생은 자신들이 써온 학습 플래너를 예로 들며 학습력과 진로 계획에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이어 자기주도적 학습 전형으로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킨 정정임(자녀 '15년 졸업) 씨는 “아이의 성적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학습 플래너를 꾸준히 기록하고 관리한 결과, 6개 대

학의 수시전형에 모두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고 전했다. 현재 고2 자녀를 둔 장경아, 김호연 학부모 역시 학교에 대한 큰 신뢰와 기대를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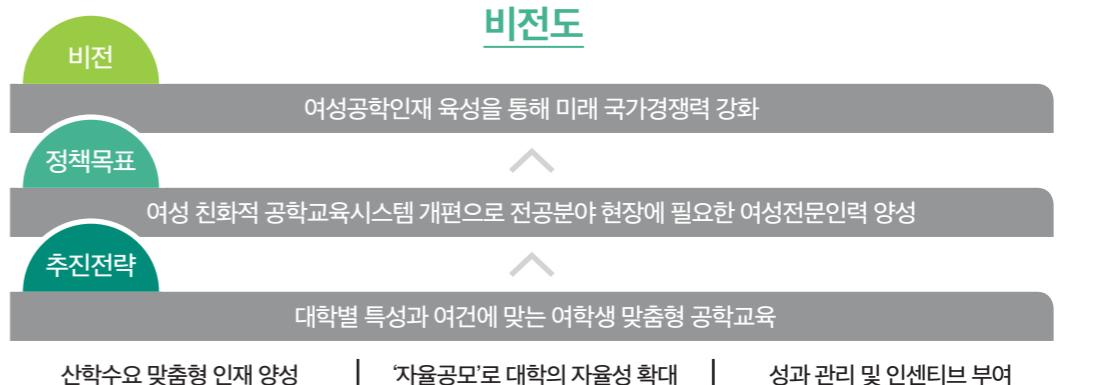
“얼마 전 한 대학 입학사정관이 성적이 다소 뒤처지지만 특별한 신입생을 뽑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입학사정관이 해당 학생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 담임교사의 추천서에 쓰인 한 줄의 글귀였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3년간 자폐아인 학급친구의 짹을 자청하여 돌봐주었음.’ … 대학들도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인재도 ‘지식만 많은 학생’이 아닙니다. 모쪼록 퇴계원고의 앞선 발걸음이 우리 교육 전체로 이어지도록 교육부도 성심껏 지원하겠습니다.” 이준식 부총리의 말이다.

이 부총리는 현장의 의견을 일일이 메모하며 90여 분간 주의 깊게 간담회를 이어갔다. 무엇보다 이러한 결과를 넣기까지 ‘학교에 뼈를 묻을 각오’로 임하고 있는 교사들의 모습에 감동한 듯 간담회 참석자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맞잡으며 더욱더 큰 역할을 당부했다. ☎

여성의 공학 분야 진출이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글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여성 공학 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 급증

대학가에서는 취업난 속에서도 소위 '취업깡패'라고 불리며, 부러움을 사는 전공이 있다. 바로 기계, 전자, 화공 등 '공학계열'에 해당하는 전공이다. 대학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대졸 인력에 대해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전공은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공' 등 공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취업률도 50%에 육박하여, 의학을 제외한 인문, 사회 등 다른 전공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 '위미노믹스(Womenomics : 여성(Women)과 경제학(Economics)의 합성어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현상, 혹은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경제이론을 일컬음)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산업인 IT 비즈니스, 반도체 등의 분야는 여성의 섬세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공대생에 대한 기업체의 수요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애플사가 여성의 취향을 고려해 아이폰 6S에 '로즈골드'색상을 입혀 크게 인기를 얻었는데, 애플사의 '여성 R&D 인재'가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이제, 공학 분야가 '남성'의 전유물인 시대는 지났으며, 또한, 더 이상 '남성'만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게 된 것이다.

문제는 여학생들은 취업이 잘 되는 공대에 진학하려고 하지 않으며, 어렵사리 공대에 진학을 했음에도 정작 취업을 할 때에는 전공과 다른 분야의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비단 학생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공과대학의 교육

시스템이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이라 여성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의 주요 내용

이러한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교육부는 작년에 여성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예산을 50억 확보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 : Women in Engineering - Undergraduate Leading Program)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4년제 공과대학의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여학생도 공학 분야로의 진학과 취업에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장기 인력 수급전망을 고려하여 여학생이 진출하는 것이 유리한 분야를 분석하고, 전공트랙을 마련하여 해당분야로의 진출을 지원할 것이다. 현장실습, 프로젝트 수업 등에서도 여학생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졸업 후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산 후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전생애적 관점에서 진로 설계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공과대학이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 문화가 팽배해 있을 수 있는 바,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각종 교육과정 개선 등을 위해 우선 4년제 공과대학 중 공모를 통하여 선도(Leading)대학을 10여 개 선정하여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공과대학에 성과를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동 사업은 재정지원사업 최초로 '자율공모'로 추진

한다. 공과대학이 처한 현실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지역별도 어떤 산업이 우세한지, 대학의 규모가 큰지 작은지, 학과별로 여성이 선호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학교별로 처해진 여건은 매우 다를 것이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특정 지표를 정해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대학이 학교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목표를 설정하며, 필요한 예산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재정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의 현재 여건보다는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정성지표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은 자체적으로 연차별 성과지표와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 선정되는 대학인 선도대학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성과확산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해야 한다.

4년제 대학 계열별 남녀취업률 격차 ('15년)

(단위 : %)

계열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남학생 취업률	37.2	48.2	53.7	39.4	68.9
여학생 취업률	36.5	46.2	49.9	39.2	66.7
취업률 격차	0.7	2.1	3.8	0.2	2.2

시청자미디어센터

“나도 라디오 DJ”... 미디어로 보는 세상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일 DJ를 맡은 OO입니다.”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체험관 실제 라디오 부스를 그대로 재현한 오픈 스튜디오에서 아이들은 1일 DJ가 됐다. 라디오 PD가 되어 음향 체크도 해보고, 친구와 함께 애니메이션 더빙에도 나섰다. 실물과 똑같은 TV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뉴스체험이 한창이다. 앵커가 되어 소식을 전하고, 크로마키 앞에서는 날씨를 예보 했다. 다양한 캐릭터의 템블러 미디어를 이용한 영상편집과 오디오 믹싱도 아이

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원하는 대로 하는 편집이 재밌다.”는 아이들은 2시간 동안 미디어체험에 푹 빠졌다.

놀이·체험 중심 미디어교육 ‘인기’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교육을 제공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부출연기구다. 2005년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이후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에 센터가 개소했으며, 올해 울산도 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곳에서는 이전을 앞둔 서울을 제외하고, 실제 방송 스튜디오를 그대로 재현한 오픈 스튜디오에서 미디어체험을 하루 2~3차례(월~토, 5세 이상) 운영하고 있다. 뉴스제작, 라디오DJ 등에 스태프로 참여하는 방송 제작과정 체험으로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돋는다.

차동엽 시청자미디어재단 선임연구원은 “놀이와 체험 중심의 미디어활동으로 유아, 초등학생의 참여가 높은 편이지만, 최근 청소년 진로체험을 위한 중·고교 학교 단위 신청도 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3만 9천여 명이 다녀갔다.”며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통해 앞으



영화 촬영·편집 미디어교육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교육을 제공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부출연기구다.



분화하는 등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이 활발해지고 있다. 120개교에서 운영하는 자유학기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터 기획에서 촬영, 편집, 상영까지 전 영역을 해낼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이뤄진다. 인천 센터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편집’, ‘영상 제작’, ‘스마트폰 활용 통한 영상 제작’, ‘청소년 뉴스제작’ 등을 주제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미디어체험

한편, 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든 미디어 교육은 무료이며, 지역별 센터 홈페이지로 예약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사전교육 이후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



TV스튜디오 체험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 안내

지역	프로그램	홈페이지(예약)	문의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http://kcmf-seoul.or.kr	02)922-9970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 미디어 기초 교육(리터러시 교육)	http://blog.naver.com/incheoncomc	032)722-7913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 콘텐츠 제작교육(영상/라디오)	www.comc.or.kr	051)749-9500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 미디어 체험 교육(서울 제외)	www.comc-gj.or.kr	062)650-0300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http://gwbog.kr	033)240-2345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http://blog.naver.com/medianuri	042)865-3700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학급상담

처음 교직에 나왔을 무렵 나는 무척 무서운 교사였다. 아이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신념과 열정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행동은 하나도 넘기지 않고 고치려 했고 자연히 엄격하고 무서운 교사가 되었다. 열정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과의 관계는 웬지 모를 서먹함과 거리감이 느껴졌고 교사 경력이 더해질 수록 뭔가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었다. 점점 교사라는 직업에 힘이 부치게 되었을 즈음에 상담을 알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나 자신부터 바뀌어 갔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어떻게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학급운영에서 자연스럽게 상담을 접목하고 있었다. 어떻게 상담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게 되었는지 나누고자 한다.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소통의 시작!

아이들과 소통을 잘 못하던 나는 먼저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면 얼굴을 보고 듣는 연습부터 했다. 그냥 웃어주고 '그래, 그래'라는 말을 중간에 넣고 고개도 끄덕여주었다. 그 한 가지만 했는데도 아이들이 점점 내 곁으로 다가오는 것 이었다. 다가오는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 중간 '힘들었겠네', '속상했겠다'라는 감정을 한마디씩 하였는데 어떤 아이는 그 말에 가만히 멈추더니 우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냥 들어주고 공감하는 말 한마디만 했는데도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마치는 시간에는 다함께 '차렷, 경례'로 인사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한 명씩 눈을 마주



치고 악수하며 오늘 하루 어떠했는지 간단한 대화를 하였다. 하루 종일 있어도 이야기 한 번 나누지 못한 아이와도, 마음이 불편했던 아이와도, 기분이 좋아 생글생글 웃는 아이들과도 집에 보낼 때 마음을 나누었다.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 이야기 잘 들어주어야지'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나는 늘 바빠서 아이들이 오면 얼굴도 보지 않았고 주로 내 말 하기 바빴다. 소통의 시작은 아이의 말이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진정한 소통이 되었다.

공감대화카드로 쉽게 상담하기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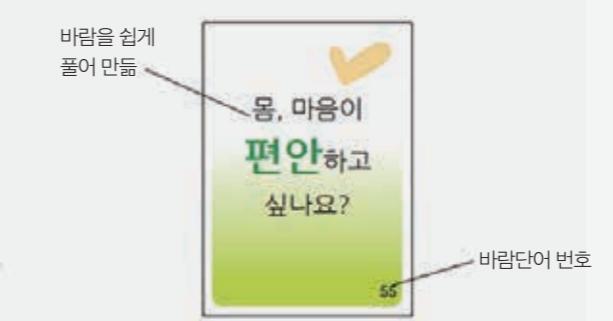
했지만 나의 도움이 조금 더 필요한 아이들이 있었다. 감정을 조절 못하는 아이, 친구들과 다툼이 많은 아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 등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 아이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 상담을 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과 상담을 할 때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아이보다는 말을 잘 하지 않거나 '몰라요'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들이 쉽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상담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공감대화카드라는 도구를 만들게 되었다. 공감대화카드는 감정단어(68개), 바람문장(59개)을 중심으로 감정단어는 상황그림을, 바람카드는 질문형 문장으로 구성하여 카드로 만든 소통과 상담을 위한 도구이다.

감정카드 예시



바람카드 예시



공감대화카드를 활용하여 쉽게 상담하는 과정은 감정카드로 마음을 열고 바람카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이 스스로 찾도록 했다. 말이 없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도 자신의 감정을 카드로 찾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했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상담이 진행되었다.

놀면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놀이집단상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놀이이다. 학급에서 놀이는 잠시 환기용으로 사용될 때가 많지만 놀이를 통해 상담적인 요소를 가미하면 훌륭한 배움이 일어나게 된다. 놀이를 하게 되면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한 상호작용에서 아이들이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나눔으로써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놀이는 시중에 책도 많고 인터넷에도 많이 공개가 되어 있다. 활동 중심 놀이를 하고 놀이를 마치고 난 후 아이들과 둘러앉아 '서로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니?', '친구들과 활동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점은 없었니?' 등의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이 즐거웠던 활동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한다. 교사가 의도한 것 이상으로 아이들은 훨씬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운다. 특히, 학기 초부터 놀이집단상담을 통해 말보다는 활동으로 움직이다보면 어느새 아이들은 마음을 열고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몸이 자유로워지고 편해지면 마음도 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과 소통을 시작한 지도 십년이 넘었다. 무섭고 엄하게만 해서 아이들과 소통도 관계도 좋지 않아 교사에 대한 회의를 느끼던 내가 상담을 알게 되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며 마음을 나누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의 성장을 도우며 내가 더 성장하고 배우게 되었던 것 같다. ☺

명예기자 리포트

교사, 학부모, 대학생 등 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들이 생생한 교육현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현장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땀과 희망으로 써내려간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편집실>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명예기자들의 기사 전문과 생생한 교육이야기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성장학교, '구름학교'가 열리다!

3월 12일 토요일 9시 김해대청중학교에서 “성공이 아닌 성장을, 지식을 넘어 행동하는, 학교를 넘어 세상 밖으로, 오늘을 넘어 내일로” 나아가는 교실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선생님들의 성장학교인 ‘구름학교’ 입학식이 개최되었다. ‘구름학교’란 발을 ‘구르다’라는 동사의 명사화로 발을 구르면 진동이 느껴지고, 그 진동은 더 커져서 하늘 위 상상하는 구름에 닿을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구름학교’는 단순한 연수와 배움을 위한 곳이 아닌, ‘배움과 실천, 성장, 그리고 나눔’이라는 타이틀 아래 선생님들의 현장 수업 적용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구름학교’는 교육청 단위가 아닌 현장 교사(김해대청중 홍성일)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교사들의 자발적 신청과 운영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구름학교’는 3월 12일부터 2017년 1월 8일까지 이루어진다. 입학생은 총 44명으로 2개 학급으로 구성되며 학급당 1명의 학급담임과 학생 5명당 1명의 멘토가 배치되며, 운영과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서포터즈 10명으로 이루어진다. 등교는 매주 짹수 주 토요일이며 김해대청중학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이 이루어지며 등교하지 않는 날에는 ‘구름 학교’ 밴드(On-line구름학교)를 통해 상호 소통하고 학급별 팀별 과제활동을 업로드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김명선 명예기자(김해대청고 교사)



나눔활동으로 들썩들썩 '꿈꾸는 청소년 나눔스쿨'

지금 대한민국은 청소년들의 나눔활동으로 들썩들썩 거리는 것 같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은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7개 지역 7개 학교 또는 기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눔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서울에서는 시설보호 청소년, 인천에서는 학교밖 청소년, 전남과 강원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경기에서는 저소득 청소년, 전북과 부산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복지대상 청소년 등에게 ‘지역 청소년 리더 양성을 위한 나눔스쿨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청소년 리더 양성을 위한 나눔스쿨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해 이해하고, 문제점을 탐색, 발견해 지역사회에 맞는 나눔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사)나눔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하고, 신한금융지주에서 후원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6학년도 현재 서울, 인천, 전남, 강원, 경기, 전북, 부산 7대 지역의 7개 학교(또는 기관)에서 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은희 명예기자(한바다중 교육복지사)

인천재능고, 일학습병행제로 43명 취업과 진학 한손에

인천재능고등학교(교장 신승찬) 졸업생 43명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여, 우수 중소 기업 취업과 대학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고졸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업 후 대학 교육을 병행하는 제도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충족한 우량 중소기업(신용등급 B0, 종업원 20인, 연매출액 20억 이상)과 체계적 직업교육 시스템을 갖춘 우수 대학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인천재능고등학교는 도입 첫 해인 2013년부터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여, 2014년에는 10명, 2015년에는 36명, 그리고 2016년에는 43명의 학생이 취업과 동시에 진학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이은주 명예기자(인천양지초 교사)



청춘, 사춘기 메들리를 외치다



대전 중구 대흥동에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공간인 ‘청춘’이라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공동체가 활동 중입니다. 이 공동체는 2002년 창립되어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자로 시민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갈 권리 를 마련해주고, 이 시대의 청소년 교육과 문화가 바로 서도록 학교현장, 지역사회, 가정이 협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청소년 스스로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방과 후와 주말에도 모여서 즐겁게 연습을 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한편의 연극이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공연 후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소리로 소극장 안은 가득 찼고 뿌듯해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교육이 가야 할 길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영식 명예기자(국제교육신문 대전지사장)



친구들과 함께 Jump Up!

점프밴드(Jump Band)는 적당한 탄성을 갖고 있는 밴드로서 양 끝에 발목을 끼울 수 있게 만들 어진 밴드를 말한다. 면과 합성섬유, 우레탄으로 만들어진 밴드는 2개가 한 개의 쌍으로 되어 있고, 두 사람이 마주 본 후 각자 마주하고 있는 사람의 발목에 한 줄의 밴드를 끼우는 것이 기본이 된다. 이 두 밴드 사이에 만들어진 공간을 이동하며 학생들이 리듬에 맞추어 점프하며 운동할 수 있게 만든 밴드이다.

좁은 공간과 간단한 도구만 준비되면 협력과 배려, 체력과 자신감 향상의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프밴드를 학교에서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 점프밴드의 기본스텝과 동영상은 네이버카페 '오케이샘의 숲교실(<http://cafe.naver.com/oksam>)'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다.

김광일 명예기자(대구논공초 교사)



새로운 출발! 멋진 1학년이 되었어요

용인 제일초등학교(교장 홍정표)에서는 3월 2일 (수) 여느 초등학교와는 다른 특색있는 입학식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입학생 56명 전원이 학교에서 예쁘게 마련한 빨간 망토옷과 베레모를 쓴 채 의형제를 맷은 6학년 언니 오빠들의 손을 잡고 내빈, 학부모님, 선생님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입장하였다.

이날 입학식장에는 의형제 상자가 준비되었는데 6학년 재학생들이 입학생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담겨있었다. 1년 동안 아끼고 보살펴 줄 언니, 오빠들의 편지를 뽑게 되면 동생에게 예쁜 이름표를 걸어주면서 서로 의형제가 된 것을 축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수 명예기자(경기 용인 왕산초 교사)

화곡중학교 도자기 핸드페인팅

평생학습프로그램

학부모와 지역 주민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화곡중학교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있다. 화곡중학교 도자기핸드페인팅과정은 2008년 미술담당 이신 김해경 선생님께서 2학년 담임을 맡으며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해 만드셨다. 취미로 도자기 페인팅을 배우게 됐는데 혼자 알고 있던에는 아까워서 반 어머니들을 초청해 차 마시면서



유건 쓰고 도포 입고 즐겨요!

학생들이 유건을 쓰고 도포를 입고 학교 강당으로 들어선다. 학생들은 자리를 잡고 논어를 낭독하기 시작한다.



전라남도 담양 고서중학교(교장 김성희)는 아주 특별한 입학식을 거행했다. 담양 고서중학교는 입학식 시간도 달랐다. 대부분의 학교가 새학기가 시작하는 2일 오전에 입학식을 하는 것과 달리 고서중학교는 오후 3시에 입학식이 거행됐다.

새로이 입학하는 학생 20명 모두가 유건을 쓰고 도포를 입고 학교에 첫 걸음을 내딛었다. 난생 처음 입어보는 유건과 도포를 보고 호기심 어린 눈빛이 가득했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자유학기를 맞아 고서중학교는 인근 창평향교와 소담다례문화원과 협력하여 전통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통예절교육을 입학식에 접목하여 입학생 전원이 유건, 도포를 착용하고 예를 실천하는 기품 있는 선비의 자태를 선보였다.

신현태 명예기자(전남 노화초 교사)



그릇도 만들고 아이들 이야기하려 시작했는데 다른 반 어머님들도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학교에 건의해 조금 더 많은 학부모님들께 기회를 드리기 위한 도자기 핸드페인팅과정을 오픈 했고 화곡중 도자기 핸드페인팅 교실은 모든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개방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됐다.

화사가(화곡 사랑 가마)의 매력은 도자기에 자기만의 그림을 그려 나만의 그릇을 일상생활에서 직접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주 목요일 16~19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며 32명의 회원이 참석하고 있다. 7년 이상 배운 분들도 계시고 모든 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전문가 수준의 창작품들은 놀라움을 자아낸다. 화사가는 선생님의 헌신적 가르침과 예술이라는 매개체로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 하나 되고 소통하며 행복을 나누는 멋진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고 있다.

박진희 명예기자(UFCI연구소 연구원)



경남 김해 삼계초의 입학 축하 포토존

입학시즌이 돌아왔다. 햇병아리처럼 귀여운 어린이들이 엄마품을 떠나 학교라는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는 입학식.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설레

임 반 두려움 반으로 들어선 아이의 눈을 단박에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입학을 축하하는 포토존이다. 잔뜩 부풀어 오른 학부모와 신입생의 마음만큼이나 하늘 높이 떠오른 오색 풍선과 입학을 환영하는 알록달록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인기 영화배우들이나 품 잡고 찍어보던 포토존이 입학식 운동장에 나타났다. 지난 3월 2일 경남 김해 삼계초등학교 권순애 수석교사가 마련한 포토존은 그야말로 인기만점이었다. 함박웃음을 가득 머금고 품을 잡는 아이는 물론, 셔터를 누르는 학부모들의 가슴도 둥둥 떠오른 풍선만큼이나 부풀어 올라 한결 같이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권순애 수석교사는 전임지인 김해 임호초등학교에서도 해마다 포토존을 사비로 마련하여 주위의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인근의 다른 학교에도 새로운 입학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박선이 명예기자(경남 산청 단성초 수석교사)



월드비전과 함께 하는 '세계시민교육'으로 초대합니다



한국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웃들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적인 삶과 행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세계시민교육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월드비전에서는 신청학교를 방문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부를 올해도 운영하고 있다. 세계시민의 정의, 빈곤, 아동인권, 환경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 평화 등 주제를 정하여 학생대상의 수준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월드비전 세계비전시민학교(www.wvschool.or.kr)에 회원 가입 후 그로 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월드비전 대외협력팀 이진영(☎ 02-2078-7224)으로 하면 된다. 또한 월드비전에서는 교육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EBS 후원으로 전국 교사 대상 '제4회 세계시민교육 사례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학교현장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실행 노력 및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유·초·중등 교사가 참여할 수 있으며, 2015년 학교현장에서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실시한 교육과 활동 사례를 PPT형식으로 제작하여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advocacy@worldvision.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20일 까지이며, 1차 발표(2016.5.3)와 2차 심사(2016.5.14.)를 거쳐 최종 결과 발표는 '16. 5월 셋째주에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의는 월드비전 옹호팀 안소정 대리 (☎ 02-2078-7072)로 하면 된다.

최병권 명예기자(의왕고 교사)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역사교육 변화의 시작입니다

<http://moe.go.kr/history>

공부하고 싶은 교과서

역사 공부가 쉽고 재미있습니다.



학습 분량 감소

이해하기 쉬운 내용

재미있는 학습 활동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학습 분량이 줄어듭니다.

역사의 큰 흐름과 맥락을 중심으로 내용을 풀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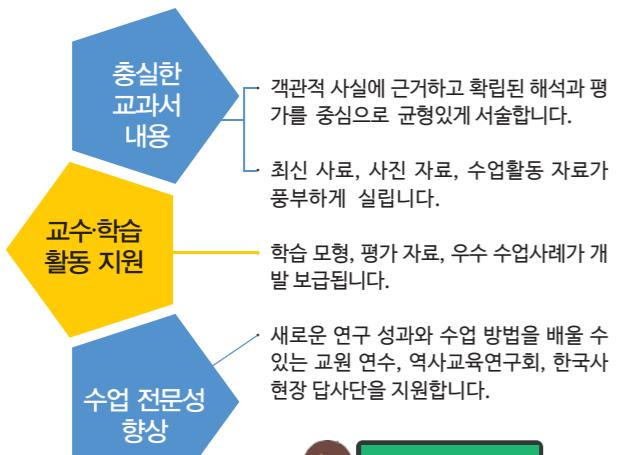
탐구, 토론, 체험활동 등 다양한 학생 중심 활동이 포함됩니다.

가르치고 싶은 교과서

수업이 생동감 넘치고 즐겁습니다.

사교육 부담 없는 교과서

학교 수업만으로 수능 준비가 충분합니다.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 체재 개선

· 수능 응시자라면 꼭 응시해야 하는 필수 과목, 40점 이상(50점 만점) 이면 누구나 1등급을 받는 절대평가입니다.

*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한국사 최저 학력기준을 3~4등급으로 설정

역사교과서와 EBS 교재 1권으로 수능 준비 가능

· 필수 학습요소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하며 수능-EBS 연계율 70%를 유지합니다.

* 별도의 사교육, 참고서, 보조교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수능 부담 경감

· 2017학년도 고1 학생들부터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공부합니다

*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출제되는 2020학년도 수능부터 부담은 더욱 줄어듭니다.



달라지는 2017 수능 한국사 (16.11.17(목) 시행)

기존 수능 한국사

사탐영역(10개) 중 1개의 선택과목
응시 방식
수능 응시자는 꼭 응시해야 하는 필수과목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고난도 문항 일부 출제
난이도
학습 부담이 없도록 핵심내용 중심 출제

20 문항
문항수
동일

30 분
시험 시간
동일

상대평가
평가 방식
절대평가

응시자 중
상위 4%만 취득
1등급
50점 만점에
40점 이상자 모두 취득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쉽게 출제합니다

**수능-EBS
연계율 70%를
유지합니다**

교과서와 EBS교재로 충분

보조자료
참고서
사교육



국가에서 발행한 올바른 역사교과서와 다른 내용, 불필요한 설명이 있다면

학생들의 **학습혼란**과 **수험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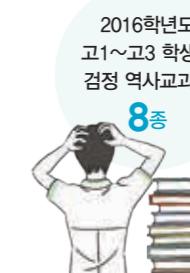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수험 부담 경감

2017학년도
고1 학생들부터
올바른 역사교과서

1권

2016학년도
고1~고3 학생들
검정 역사교과서

8종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출제되는
2020학년도 수능부터
수험 부담은 더욱 줄어듭니다.

영재를 둔 부모들의 특징

TV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영재를 찾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필자는 영재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부모의 역할을 찾아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악에 천부적 소질이 있는 친구들도 만났고 음악, 미술, 수학, 과학, 역사 등 다방면의 뛰어난 친구들과 그 가족들을 많이 만나왔다. 그렇게 1년간 영재와 영재 부모를 만나면서 가진 의문점이 한 가지 있었다. ‘왜 이렇게 늦둥이들이 많을까?’ 일반적으로 의학적 상식에 의하면 산모의 나이가 35살을 넘어가면(이것을 고령산모라고 하는데) 아이에게 기형이 일어날 확률도 많으며 산모에게도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 좋지 않다고 되어 있다. 게다가 아이를 늦게 낳으면 키울 때에도 부모가 노년이 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 쉽다. 이래 저래 아이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낳는 것이 좋다는 것 이 일반적 견해였다.

늦둥이 영재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영재성을 보이는 아이들 중에 부모가 나이가 많은 늦둥이들이 정말 많은 것이다. 늦둥이들은 어느 집에서나 귀여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물고 빨고’ 키우며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만난 늦둥이 부모들도 그랬다. 아이가 좋아한다니 시켜주고, 시켜주었더니 좋아해서 내버려둔 것이지 아이가 정말 수학을, 문학을, 과학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 정확히는 관심이 없었다. 자녀의 특기를 빨리 찾으려고 이리 저리 끌고 다니는 부모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부모가 더 젊은 것도 아니고,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도 아닌 아이들에게서 이런 영재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은 영국에서 밀레니엄 코호트라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엿볼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산모가 35세가 넘어서 낳은 아이들의 7세 전후의 인지능력이 그보다 젊은 산모들의 아이들의 인지기능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속칭 ‘더’ 똑똑한 아이들인 것이다.

35세가 넘은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20대의 부모들보다 여유가 있다. 어쩌면 그 여유로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을 더 일찍부터 시켜서일 수도 있지만, 이 연구를 보면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의 행복을 기꺼이 희생한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아이를 일찍 경쟁에 내몰며 아이를 다그친다면 우리 아이의 영재성은, 우리 아이의 잠재력은 사그라들고 만다.

20대의 부모보다 35세 이상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오히려 교육을 덜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아이들의 인지능력이 더 발달한 걸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모의 정서적 안정이다. 35세 이상의 부모들이 더 젊은 부모들에 비해서 부모로서 정서적 안정성이 더 높았다. 이것은 그대로 아이들에게 더 좋은 양육 환경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늦둥이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소리치거나 비난하거나 벌을 주는 경우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야 말로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가 영재성을 키운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은 뇌는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고 이때 나오는 22Hz 이상의 뇨파는 오히려 집중력을 방해하고 학습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부모의 정서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양육이 안정되어 있다는 걸 뜻하고, 그런 양육을 받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들의 뇌는 훨씬 학습에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간 만난 영재 아이들도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자신의 영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데 반해, 부모가 다그치는 아이들은 자신의 뛰어난 영재성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서나 사회성의 발달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부모가 다그치기를 중단하고 늦둥이를 키우듯이 아이를 대하면 자신의 영재성을 폭발시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결국,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가 학습적으로는 많이 시키지 않는 것이 늦둥이 부모들의 양육 방식에서의 특징인 것이다. 학습을 많이 시키지 않는다는 것에는 ‘양’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질’이다. 질적으로 많이 시키는 부모는 시키고 나서 자꾸 압박을 주는 부모이다. 학원을 보내고 나서 100점 받기를 자꾸 요구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못하느냐고 다그치는 것이 ‘질적으로’ 많이 시키는 것이다. 학원을 다니는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를 얼마나 다그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의 행복을 기꺼이 희생한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아이를 일찍 경쟁에 내몰며 아이를 다그친다면 우리 아이의 영재성은, 우리 아이의 잠재력은 사그라들고 만다는 것이 밀레니엄 코호트 연구 결과를 보면 깨달을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아이를 다그치면서 불행해져야 하는 걸까? 우리 아이를 늦둥이라고 생각하면서 키워볼 일이다. ☺



노규식 박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 청소년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전임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외래교수 겸 연세 휴클리닉 원장으로 일하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학생들과 부모들을 상담해 오고 있다.

학교폭력을 막는 기막힌 방법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뚜렷한 자신의 꿈과 목표를 가지지 않아 불안한 생각이 아이들 마음 한켠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은 자연스레 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적성을 찾아 진로개척을 이루는 길’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채일동 /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중 가장 큰 행사인 체육대회를 통해 언어문화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가하는 학생들의 체육복에 학년과 ‘친구사랑, 학교사랑’ 등의 문구를 넣은 스티커를 부착해 자연스럽게 캠페인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지요. 학생들에게 스스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윤 / 교사

학교폭력 예방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체_ 서현정 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날을 만들어 보세요. ‘마음나누기의 날’ 행사를 통하여 친구끼리 사과하고, 칭찬할 수 있는 표현의 장을 마련해 주세요. SNS를 통한 ‘친구사랑 가족사랑 톡톡톡’ 또는 ‘사과의 날’, ‘칭찬의 날’을 만들면 어떨까요.”

김미정 / 교사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고 또 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자신을 텁색하고, 남들과는 다른 나 스스로를 인정해 주세요. 건강하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와 다른 사람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이러한 마음가짐 이야기로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지요.”

홍문화 /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와락’ 센터장



안산공고 2학년 정은영 작

학기 초가 되면 학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인데요.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막힌 방법 없을까요? 톡톡 튀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명예기자들이 소개합니다.

“체육시간에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하는 운동(게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운동회 때 하는 이인삼각이나 ‘몸으로 말해요’ 게임처럼 여럿이서 하는 게임을 하면 어떨까요. 재미도 있고 친구들과 더 친해질 것 같아요.”

이소연 / 초등학생

“모음을 만들어 서로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로 섭섭한 일이 있었다면 이야기하고 화해하며, 마음속에 있었던 진솔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친구 간에 우애가 더욱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요.”

강병훈 / 대학생



안산공고 2학년 박지현 작

“친구들끼리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친구들 사이에 칭찬의 분위기를 만든다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행, 봉사 등 친구들의 다양한 칭찬 사례를 칭찬함에 모아 매월 칭찬신문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밝은 미소와 함께 행복을 가져다주는 인기 있는 신문이 될 것입니다. ‘칭찬신문’을 통하여 학교 안에서 칭찬의 봄을 만든다면 학교폭력 점점 사라지겠죠.”

백승준 / 교사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고 쌓이면 폭력이 늘어납니다. 등교해서 교실로 들어가기 전 일정 수의 학생들끼리 모여 그들끼리 춤을 추거나 고합을 지르는 등 맘껏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학생생활을 스트레스 없이 유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지요.”

황진문 / 교사

“모든 학생들이 취미클럽을 결성하는 등 공통적인 관심사를 만들어 공유하면 어떨까요. 서로 함께할 수 있고, 나누려는 생각이 있으면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사과나 감사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않기로 해요. 상대도 나에게 사과하거나 감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신주영 / 고등학생

“학생자치활동인 학급회의를 통하여 학생들은 친구를 사랑하는 문구, 우정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문구,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문구 등 다양한 문구를 생각하고 발표합니다. 많은 문구 중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문구 다섯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문구를 교실 게시판에 월, 화, 수, 목, 금 매일 달력을 넘기듯이 걸어놓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생각하는 문구를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면 친구의 소중함을 더욱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양지훈 / 교사

“아이들 스스로 깨닫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우리 주변에서부터 폭력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파괴된 실상을 보여주고,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법을 고안해 실천하도록 과제를 내어 줍니다.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신재일 /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담을 투명한 아크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투명하면 다 보이잖아요. 학교 밖 담 근처에서 절대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학교 담이 시원하고 뻥 뛸리는 느낌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밖이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 깨지지 않는 단단한 투명 학교 울타리에요^^!”

김혜진 / 고등학생



안산공고 2학년 홍명진 작

NEWS BRIEFING

학과구조·교육과정 개편… 인문학 발전 기반 마련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평가결과 발표

고려대는 학과구조와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학생들을 취업역량을 갖춘 지역 전문가로 양성하고, 석·박사 과정을 통해 심화된 지역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인문대학 내 노문과, 독문과, 서문과, 일문과(4개 학과)가 참여하여 러시아, 독일, 스페인, 일본 지역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해당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가톨릭대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전공 모델을 선보인다. 가톨릭대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경영학과 융합된 특화과목(외국어 영역, 글로벌 인문경영 영역, 문화영역, 경영사무영역 교육 과정)으로 구성된 G-Humanage(Global Communication of Human-Management) 전공을 개설하여 인문 지식과 경영마인드, 창의적 융합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졸업 시에는 글로벌 인문경영학사가 주어진다.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2016년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에 고려대, 가톨릭대 등 16개 대학을 선정하고, 예비결과를 최근 발표하였다.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이하 CORE)」



세계 각 지역에 특화된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지역별 현장성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또 인문학 전공 학생이 경영, 디자인, ICT 등 사회과학이나 이공학 분야 지식도 갖추어 융·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아울러 인문 전공 학생이 아닌 전 계열 학생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인문학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 인문소양을 높이게 된다.

대학의 모델구성 형태	수도권 (7)	지방 (9)
글로벌지역학모델, 인문기반융합모델		부산외대
기초학문심화모델, 인문기반융합모델		동아대
인문기반융합모델, 대학 자체모델	가톨릭대	
기초학문심화모델, 대학 자체모델	서울대	
글로벌지역학모델, 기초학문심화모델, 인문기반융합모델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경북대, 부경대, 전남대, 전북대
글로벌지역학모델, 인문기반융합모델, 대학 자체모델		계명대
글로벌지역학모델, 기초학문심화모델, 대학 자체모델	서강대	충북대
글로벌지역학모델, 기초학문심화모델, 인문기반융합모델, 대학 자체모델	성균관대	
기초교양대학 모델		가톨릭관동대

올해 첫 도입된 자율연수휴직제, 교사 256명 참여

10년 이상 장기간 재직한 교원이 자기계발과 신체적·정신적 재충전이 필요할 때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1년 동안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자율연수휴직제」가 올해 처음 도입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교사 256명이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하였다. 교육청별로는 경기 98명, 서울 53명, 대구 34명, 부산 24명, 대전 10명, 광주 9명, 인천·경북 각 8명, 경남 5명, 충

북·전남 각 3명, 세종 1명이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이 1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76명, 고교 38명, 유치원 3명, 특수학교 3명이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은 사학법인 정관을 개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제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

대입정보를 한눈에…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개통

수험생이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등을 입력하면 지원 가능한 대학과 점수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가 3월 25일 개통되었다.

「대입정보포털」은 정부3.0 취지에 부응하여 4년제 대학 198개, 전문대학 137개 대학의 입시정보를 한 곳에 모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학입학정보 포털 서비스로 고교생 3천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와 자문위원회 협의 사항을 반영하였다.

자신의 희망진로와 직업에 관련된 대학과 학과들을 찾아

보고, 해당 학과의 모집인원, 전형요소(학생부, 수능, 면접 등), 반영비율, 지원자격 등을 비교·검색할 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신의 성적(학생부, 수능, 모의고사)을 등록한 후 대학별 전형기준으로 성적을 진단해 볼 수 있다. 1:1 진학상담도 가능하다. 학교 내 대입상담과 대입정보포털을 연계한다면 교육현장의 대입지도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16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크게 늘려

국내 유수대학의 명품강좌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가 올해에는 1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16년 무크대학 10개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여 지난 해 선정된 무크대학과 함께 총50여 개의 강좌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산어촌 중학교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소외지역의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마련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에 따르면 ▲사전 예방강화 ▲발생초기 확산 방지 ▲신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 학교 안팎의 감염병 관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7년까지 신종 감염병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5년 이내 학생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의 발생건 수를 3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②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교직원 건강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2017년까지 신종감염병 대비 안전 확보

5년 이내 다빈도 학생 감염병 발생건수 30% 이상 감소



추진전략

사전예방 강화(평상시 예방관리)

발생초기 대응 강화(확산방지 체계 정비)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일상복귀를 위한 조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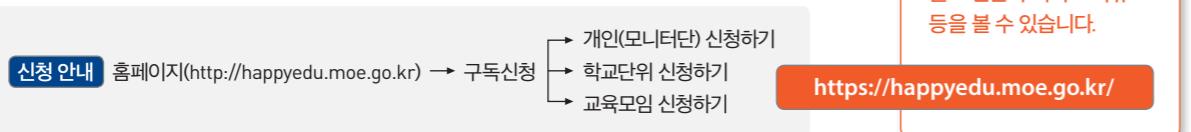
제도개선 및 인프라 강화

행복한 교육

“집에서 무료로 받아 보세요”



교육부가 발행하는 교육정책 정보지『행복한 교육』을
교무실에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받아 보세요.
『행복한 교육』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신청하시면
무료로『행복한 교육』을 보내드립니다.



五자 만 담

“생활 속 과학 ○○○○○(으)로 만든다”

어떤 이들에게 과학은 늘 가깝고도 먼 친구입니다. 과학을 생활 속에서 접근하는 친근한 방법 뭐 없을까요? 과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재치를 담아 5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매달 20일까지 '행복한 교육(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응모하시면,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五자만담 당첨자

3월호 주제 : “애들아, ○○○○○(한) 우리 반 만들어 보자”

이용석(오면즐거운), 한송이(월드클래스), 최용준(같이즐거운), 방윤희(서로위하는), 김설한(또만나고픈) 님 축하드립니다.

만3~5세 누구나

유치원, 어린이집
3년 간 어디서나 누리는

행복교육, 누리과정



행복하고 평등한 교육의
첫출발입니다!

